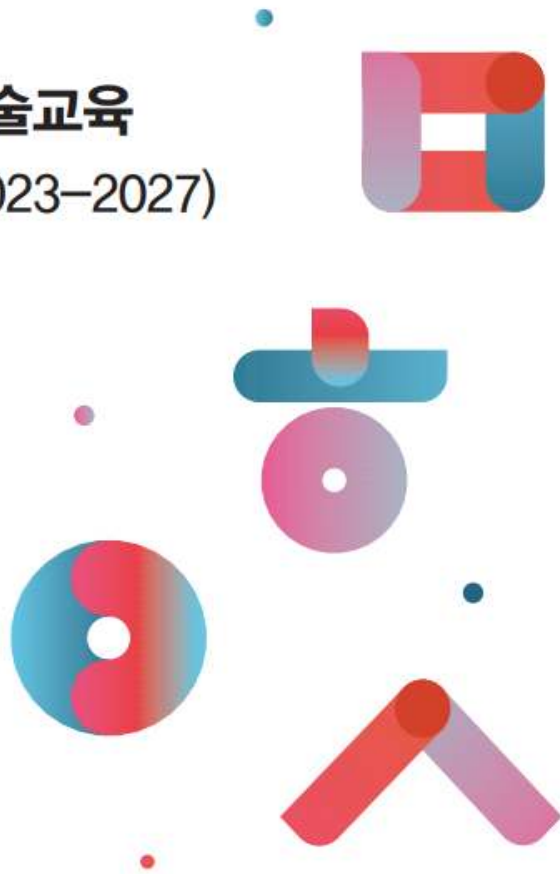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
수립 연구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 수립 연구



제출문

(재)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 수립 연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책임

이순욱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 교수

공동연구

남영희 부산대학교 강사/문화연구자
서정아 부산대학교 강사/문화연구자
이강민 울산대학교 겸임교수/부산대학교 예술학박사
정민경 부산대학교 강사/문화연구자
김도희 부산대학교 강사/문화연구자

연구보조

명수현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연구의 내용은 (재)부산문화재단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1
2. 연구 범위와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방법	4
(1) 기초자료 분석	4
(2) 설문조사	5
(3) 전문가그룹 집단회	5
3. 연구 절차와 추진체계	7
II. 부산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현황	8
1. 지역 기반	8
1) 법령·법규	8
2) 예산	9
3) 추진기관과 기구	1
(1) 기관	1
(2) 기구	1

4)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수행단체	41
5) 문화예술교육 공간	2
2. 제1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이행 결과 분석 3· 3	
1) 2018~2021년 추진사업 개관	33
2) 이행 결과 분석	3
(1) 이행 현황	3
(2) 예산	3
(3) 추진전략별 현황	4

III.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

방향성 설정	48
1. 문화예술교육 환경의 변화	48
1) 문화예술교육 환경	48
(1) 문화예술의 가치 사슬 확대와 문화역량의 필요성 대두	84
(2)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수요 증대	84
(3) 학교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94
(4) 불안과 불확실성의 시대, 회복력 필요	05
(5)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15
(6) 사회변화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재인식	25

2) 지역 환경	5
(1) 인구 동향 및 정책 환경	5
(2) 자립형 부산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주요 정책 환경	16
2. 지역사회와 현장의 요구	8
1) 제2차 정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	8·6
2) 현장 요구	9
(1) 키워드를 통해 본 문화예술교육 활동가의 주요 관심사	9·6
(2) 지역사회의 의제와 현장의 요구	57
3) 전문가그룹 집단회 결과 분석	18
(1) 그룹별 논의 결과	28
(2) 논의의 종합과 시사점	39
IV.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	51
1. 추진 방향	105
2. 비전과 목표	106
3. 추진전략별 과제와 사업	115
1)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115
(1) 수요자 맞춤형 사업체계 강화	115
(2) 콘텐츠 다각화 및 질적 심화	115

(3)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	8
2) 지역문화예술교육 자율성 강화	8
(1)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주도성 강화	9
(2) 사회서비스로서의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강화	9
(3) 기초 및 생활권 연계 협력체계 및 기반 구축	9
3) 정책 기반의 입체적 고도화	12
(1) 전문인력 양성과 인적 역량 강화	8
(2) 사업 지속성 강화	14
(3)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및 공감대 확산	8
V. 제언	127
참고문헌	134

표 차례

[표 1] 전문가그룹 집단회 진행	6
[표 2]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규	8
[표 3] 부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 현황(2018~2022)	9
[표 4] 부산 문화예술교육 추진기관	11
[표 5] 부산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구	11
[표 6]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명단	21
[표 7]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실무협의체 명단	4 1
[표 8] 부산 문화예술교육 수행단체 목록	5 1
[표 9] 부산 문화예술교육 공간 목록	12
[표 10] 제1차 정부/부산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과 추진전략별 연관 사업 영역	3 3
[표 11] 2018~2022 부산문화예술교육 사업 및 세부 사업 추진 현황	4 3
[표 12] 제1차 부산종합계획(2018~2022) 이행 내역	7 3
[표 13] 2018~2020 추진전략별 예산 현황	3 4
[표 14] 제1차 부산종합계획(2018~2022) 이행 현황	4 4
[표 15] 2022년 부산광역시 인구 추이	2 5
[표 16] 부산광역시 제2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2020~2024)과 문화예술교육	2 6
[표 17] 제2차 정부종합계획(2023~2027)	8 6
[표 18]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부산지역 문화예술교육 현장활동가 설문조사: 빈도수별 키워드 응답 결과	0 7
[표 19] 2022년에 주목할 10대 이머징 이슈	6 7
[표 20] 전문가그룹 집단회 진행	18
[표 21] 전문가그룹 집단회의 논의 결과와 시사점	4 9
[표 22]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	801
[표 23]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추진전략별 추진과제와 세부사업	011

그림 차례

[그림 1] 부산 인구이동 추이	55
[그림 2] 1인가구 증감 추세	65
[그림 3] 2022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요약본)	4 6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018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6조 4항, 이하 문화예술교육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이하 제1차 정부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지역 중심,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삶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육” 비전 실현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에서는 비전 및 전략, 과제를 반영한 제1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이하 제1차 부산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의 종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차기 5년(2023~2027)의 정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하 제2차 정부종합계획)과 지역 문화예술종합계획(이하 제2차 부산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제1차 정부종합계획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시행됨으로써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를 촉발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문화예술교육의 실행주체와 대상, 수요자 역시 다변화되었다. 그러나 사회문화예술교육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이분법적 경계는 문화예술교육의 종합적 효과 측면에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으며,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지역화 또한 기초단위까지는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지역화 및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화두를 제시했으나 지역의 가치가 일반화되면서 지역의 개별성·특수성이 부각되지 못했으며, 정부 주도 방식으로 이루어져 지역에서 충분한 공감대 형성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정부에서도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현장 체감형 정책과제 도출 및 정부와 지역의 종합계획 연계성을 도모하면서 상향식 종합계획의 수립과 운영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2022년은 지방이양이 시작되는 해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예산 및 법제도의 개선과 검토과정에서 지방이양 이슈에 따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앙-광역-기초단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제1차 부산종합계획에 따라 부산문화예술교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과와 한계를 보였다.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에서는 인력양성 체계 구축, 놀이마루 운영, 컨설팅 지원 전문성 확보 등 광역센터 지원 기능 강화에는 일정한 성과를 도출한 반면, 꿈꾸는예술터와 기초센터 신청에 실패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이라는 전략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수요자 중심 교육환경 구축에서 유아 및 중장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구축한 것은 뚜렷한 성과다. 그런데도 단순한 체험과 향유를 넘어 참여와 과정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으로 확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문화예술교육 질적 기반 고도화 면에서는 실태조사와 인력양성을 통한 지역 인적 자원의 강화,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성과로 꼽을 수 있으나,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원(인력과 공간)에 대한 아카이빙과 온라인 플랫폼과의 연계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즈음 기술 진보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쟁점들이 크게 달라졌다. 기술혁명이 인간 삶의 방식의 급격한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가운데 젠더와 섹슈얼리티, 민족, 지역, 세대 등이 초래하는 다양한 격차와 갈등, 생태 및 기후환경 위기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도전도 만만찮다. 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도 경계확장은 물론이고 메타적 인식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특히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에 관한 인식은 필수적이며,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기존의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나아가 새롭고 진취적인 모형의 설계를 고려해야 한다.

제2차 부산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할 과제는 여럿이다. ① 지역화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성을 기준으로 한 종합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자율적 이행 진단 가능성을 검토하여 지방이양을 지역의 다양성 및 창의성 증진의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2차 정부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을 재검토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연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주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안착시키는 것도 과제다. 행정 주도 방식보다는 문화예술교육 수행단체와 참여자 양자가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게 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의견 공유와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절실하다. ④ 일회성에 그치거나 소모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 발전 가능성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사업의 확장성, 순환성, 변주

성을 고려해야 한다. ⑤ 신규주체의 진입 장벽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 영역으로의 참여 동기를 확보하고,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⑥ 효과적인 성과 측정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참여자 수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천편일률적 만족도 조사에서 탈피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성과 및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일이 중요하다. ⑦ 부산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일도 필수적이다.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공간을 개발하기 위해 시민공감대 확산, 문화예술교육 수행 주체들 간 교류 협력 강화를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단 부서 간, 광역지원센터, 교육청, 지자체, 문화예술 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모멘텀을 형성하고, 일상 속 주민공동체 활동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 주민네트워크 형성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⑧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연구·개발·운영의 통합적 환경조성, 공급자와 수요자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플랫폼 활성화, 환류시스템, 문화예술교육 단체, 활동가, 공간 등 데이터 축적과 아카이빙, 홍보 강화와 같은 문화예술교육 기반의 고도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⑨ 혁신교육과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지원, 평생교육 및 생활문화 지원과 같은 유사 사업 간 구분과 협력을 위한 환경조성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의 비전 제시와 목표 수립, 추진전략 제안, 추진과제 설계에 목적을 두었다.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및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연구와 연계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핵심 가치의 재정립과 구조 개편, 가치 지향 등을 통해 질적 전환을 도모하고, 기술혁명과 삶의 변화, 생태와 기후위기, 다양한 격차와 갈등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도전 앞에 문화예술교육의 응전 방식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재인식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첫째, 부산 문화예술교육의 현황을 살폈다. 법규와 예산, 추진기관과 기구, 수행단체 및 교육공간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역 기반, 제1차 부산종합계획(2018~2022) 이행 결과를 점검함으로써 제2차 부산종합계획 수립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둘째, 제2차 부산종합계획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쟁점과 부산의 지역 환경을 살폈다.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의제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논의 주제를 도출하고 전문가그룹 집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뒤, 그 결과를 종합적·교차적으로 반영하였다.

셋째, 제2차 부산종합계획의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며, 추진 전략별 과제와 사업을 제안하였다.

넷째, 부산문화예술교육 정책 전반에 관한 제언을 덧붙였다.

2) 연구방법

(1) 기초자료 분석

먼저, 문화예술교육 관련 제도, 예산, 추진기관, 수행단체, 공간 등 부산문화예술교육 기반과 정책 등을 검토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부산문화재단에서 발간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각종 연구보고서와 결과자료집,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확산성 연구, 연수프로그램 관련 연구, 제1차 정부종합계획과 부산종합계획 이행 현황과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진 토론회 자료를 포함하였다. 문화예

술의 환경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련 연구기관의 트렌드 분석과 전망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유네스코 보고서, 국회보고서와 관련 연구성과도 폭넓게 검토했다. 부산의 지역 환경을 재검토하고 문화예술교육 지형의 변화를 섬세하게 읽어내기 위해 부산연구원, 부산시 등의 정책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 환경과 지역 환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2) 설문조사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고 지역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2년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수행단체와 관련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부산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에 필요한 키워드를 도출할 목적으로 간략한 형태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수립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지점, 즉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상: 2022년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수행단체(꿈다락 문화학교, 예술로 팬클럽 일상, 황금빛 예술학교, 우리동네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 실험실B)
- 목적: 문화예술교육 의제 파악
- 방식: 온라인 설문 폼(문자/메일로 설문 URL 배포)
- 기간: 2022.7.12(화)~16(토) (5일간)
- 역할: 연구팀-설문문항 구성, 설문 폼 마련, 분석 및 검토
재단-설문문항 확인, 설문 폼 URL 배포
- 결과: 정책수립을 위한 키워드는 공공성, 거버넌스, 생애주기별 교육, 사회적 가치·창의성, 생활예술·생활문화, 공감, 문화정책(우선순위대로)으로 나타남

(3) 전문가그룹 집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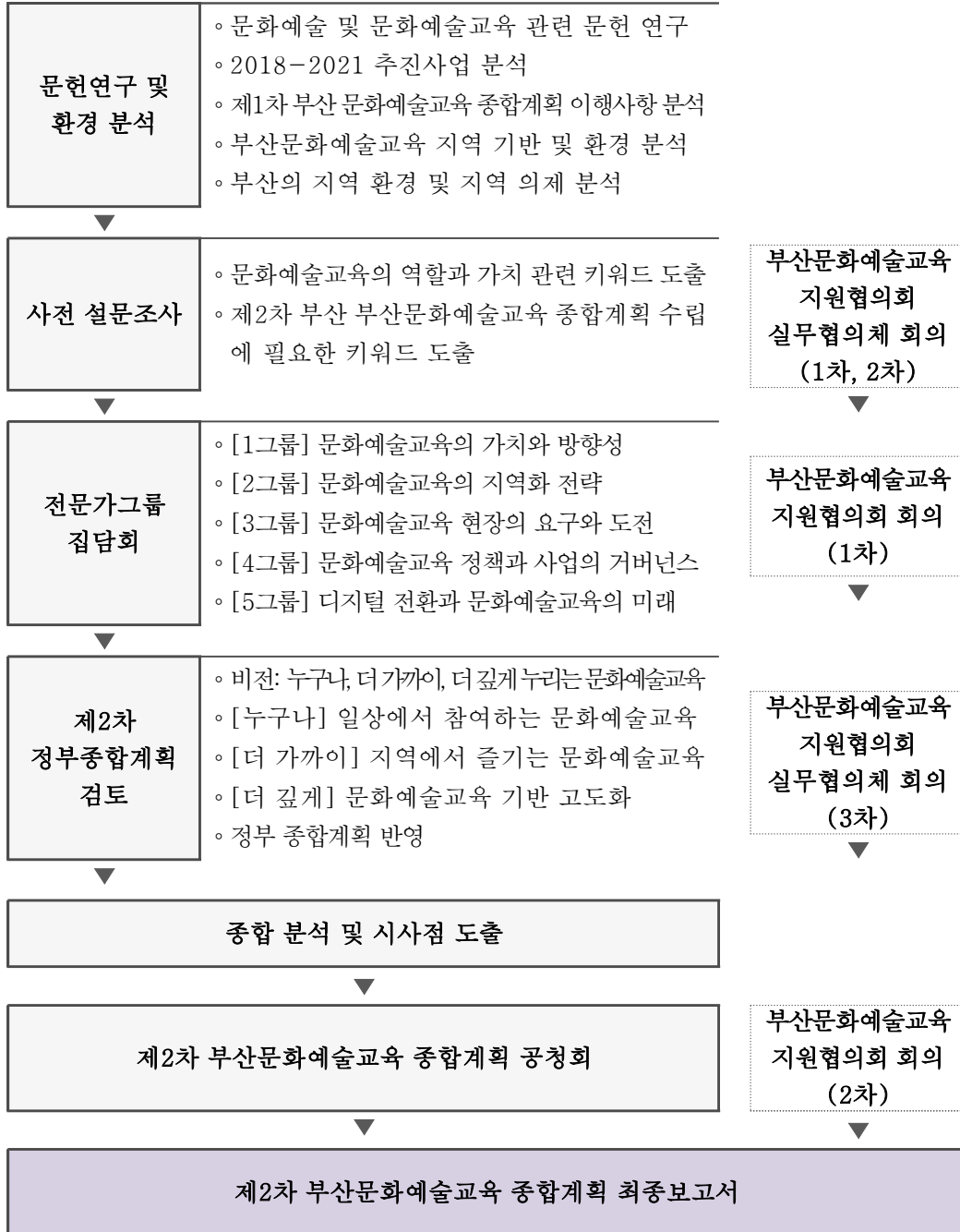
기초자료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과제 5개를 도출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방향성,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전략,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요구와 도전,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사업의 거버넌스, 문화예술교육의 전환과 미래가 그것이다. 이를 바탕

으로 부산지역에 걸맞은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그룹을 운영하였다. 디지털기술의 발전, 기후위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인간의 삶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존재방식, 그러니까 문화, 예술, 교육의 개념부터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새롭고 다양한 시각을 확보하는 일은 필수적인 절차 가운데 하나였다. 이에 따라 각 주제별로 전문가그룹을 형성하고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적·교차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전문가그룹 집담회의 개요는 [표 1]과 같다.

[표 1] 전문가그룹 집담회 진행

구분	의제	일시	장소
제1그룹	개념과 범위, 가치(철학)와 방향성, 이론과 실제	2022년 8월 17일(수) 14:00-16:30	부산문화재단 3층 배움방2
제2그룹	지역화 전략	2022년 8월 18일(목) 13:30-16:00	부산문화재단 3층 배움방1
제3그룹	현장의 요구와 도전	2022년 8월 19일(금) 10:00-12:30	부산문화재단 3층 배움방1
제4그룹	정책 거버넌스 (중앙-광역-기초)	2022년 8월 22일(월) 15:30-18:00	부산문화재단 3층 배움방2
제5그룹	디지털 전환과 미래 (기술, 융복합, 다양성 등)	2022년 8월 24일(수) 13:00-15:30	부산문화재단 3층 배움방2

3. 연구 절차와 추진체계



II. 부산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현황

1. 지역 기반

1) 법령·법규

현재 부산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과 법규는 4개다. 2005년 정부에서 마련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시작으로 기초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규를 잇따라 제정했다.

[표 2]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규

No.	법규명	제정연도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2005
2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16
3	「부산광역시중구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	2020
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	202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2005)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 제3장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4장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5장 문화예술교육사, 그리고 이의 부칙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2016)는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과 책무, 학교·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문화예술교육사업과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은 이 두 법규에 근거한 것이다.¹⁾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2

「부산광역시중구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2020)는 부산지역에서 처음 제정된 구 단 위 조례다. 문화예술교육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과 함께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지 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조례」(2021)는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 다.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관련 조례는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 이후 11년 뒤인 2016년부터 제정되기 시작했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약 10여 년 간 중앙과 지역 간의 온도차가 존재했으며,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추진된 시점에 비해 부산 지역 단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정책적 근거 마련은 비교적 최근부터 본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예산

[표 3] 부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 현황(2018~2022)

(단위: 천원)

No	사업명	사업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1	광역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운영	300,000	-	-	-	-
2	꿈다락 토요문화 학교 운영지원	1,642,000	-	-	-	-
3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294,000	-	-	-	-

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6조(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4항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문화예술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

No	사업명	사업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4	가을독서문화축제	70,000	-	-	-	-
5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491,899	-	-	-	-
6	지역문화예술교육 육 기반구축	-	2,012,200	2,012,200	2,012,000	2,012,000
7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	240,000	240,000	213,000	172,000
8	유아문화예술 교육 지원	-	200,000	200,000	200,000	200,000
9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	230,000	230,000	-	-
10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	-	400,000	350,000	200,000	-
11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855,740	844,750	855,740	855,740	855,740
12	어린이무형문화재 교실	70,000	70,000	70,000	70,000	100,000
13	독서인문학 활성화 지원	40,000	40,000	32,000	32,000	-
14	도시철도 북하우스 운영	140,000	90,000	90,000	55,000	-
15	신중년인문학 사업	-	-	-	25,000	-
계		3,903,639	3,887,190	3,840,180	3,662,740	3,339,740

3) 추진기관과 기구

(1) 기관

[표 4] 부산 문화예술교육 추진기관

No.	이름	비고
1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부산문화재단 문화교육팀
2	부산광역시교육청	
3	부산예술강사지원센터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위탁 운영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의거하여 2010년 5월 광역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되었고, 2011년 2월 부산문화재단 조직기구 내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신설되었다. 현재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 문화교육팀이 광역지원센터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와 공교육 제도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다룬다. 부산예술강사지원센터²⁾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2) 기구

[표 5] 부산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구

No.	이름	비고
1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1기: 2019.1~2021.1. 2기: 2022.10~2024.10.
2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실무협의체	2022.5 발족

2) 부산은 2017년부터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①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요사항 협의·조정·자문, 부산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관련 연계 사업 및 협력 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구성된 기구다. 지역 내 문화예술 분야 및 학계 전문가 15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기수별 임기는 2년이다.

[표 6]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명단

기수	연번	구분	분야	소속	성명	임기
1기	1	당연직	위원장	부산시 행정부시장	정현민	2019.1.7 ~ 2021.1.6 (2년)
	2		부위원장	부산광역시 교육청	전영근	
	3	위원	문화행정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김배경	
	4		교육행정	수정초등학교	한영천	
	5		문화예술교육사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신고운	
	6		문화예술교육사	경성대학교	정희균	
	7		문화예술인	사단법인 민족음악회	김정화	
	8		문화예술인	신라대학교	이건희	
	9		학계 전문가	부산가톨릭대학교	박선정	
	10		학계 전문가	동서대학교 임권택영화연구소	김정선	
	11		학계 전문가	부산대학교	박은화	
	12		학계 전문가	부산대학교	이순욱	
	13		관계기관 전문가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박영미	
	14		관계기관 전문가	부산연구원	오재환	
	15		시의회	부산시의회	김정량	

2기	1	당연 직	-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이병진	2022.10.19 ~ 2024.10.18 (2년)
	2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3	시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장	김민숙	
	4	위원	시의회	부산광역시 시의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5		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	김순량	
	6		교원	부산 금곡고등학교 교사	이옥상	
	7		문화예술교육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강사	최윤정	
	8		문화예술교육사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강사	노하나	
	9		문화예술인	필로아트랩 대표	이지훈	
	10		문화예술인	(주)샤콘느 대표	윤보영	
	11		학계 전문가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이순옥	
	12		학계 전문가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이사	류기정	
	13		학계 전문가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교수	김원명	
	14		학부모	부산광역시 학교 학부모회 총연합회 회장	장세진	
	15		관련시설 및 단체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김민경	

②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실무협의체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실무협의체는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개최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세부사항(워킹그룹, FGI 참여 등) 및 지역 내 협력사업 논의 등의 역할을 맡는다.

[표 7]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실무협의체 명단

No.	구분	분야	소속	성명	비고	
1	내부 위원	재단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장	서상호		
2	운영 위원	재단	부산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최윤진		
3		재단	부산문화재단 문화교육팀원	남서아		
4	외부 위원	부산시	부산시 문화예술과 문화복지팀장	김동한		
5		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문화예술방과후교육 장학관	전승순		
6		교원	금곡고등학교 교사, 신라대학교 겸임교수	이옥상	1차 부산종합계획 추진단 검토위원	
7		전문가	필로아트랩 대표	이지훈		
8		민간 (현장)		플랜비 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	이승욱	
9				문화와 예술 다다 대표	조영미	1차 부산종합계획 추진단 검토위원
10				모이다 아트협동조합 대표	모상미	

4)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수행단체

부산문화재단 지원 문화예술교육사업 수행단체의 성격은 다양하다. 예술단체,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 또는 교육단체, 문화기획단체, 생활문화단체, 출판사, 도시공동체, 사회기반시설, 한시적 성격의 프로젝트팀 등이 부산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해 왔다. 아래 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을 수행한 단체다.

[표 8] 부산 문화예술교육 수행단체 목록

No.	단체명	분야	사업 참여 현황	단체 소재지
1	(재)고은문화재단	사진	2019 꿈다락(일반형), 2020 꿈다락(일반형)	해운대구
2	ARRANGERS (어레인저스)	음악	2020 지특(인큐형), 2021 꿈다락(인큐형), 2022 꿈다락	금정구
3	DOT미술관	미술	2019 꿈다락(일반형)	금정구
4	EEDA	통합	2019 창의예술교육랩(오픈랩 공모형), 2020 지특(일반형)	해운대구
5	Gachi 예술협동조합	통합	2018 지역협력형 문화예술교육, 2020 지특(기획형)	강서구
6	공간나. 라	영상	2021 지특(프로젝트형)	수영구
7	공연예술단체 아티스트트럿	연극	2021 꿈다락(인큐형), 2022 꿈다락	영도구
8	관객문화협동조합 모퉁이극장	영상	2018 지특, 2020 지특(일반형), 2021 지특(일반형), 2022 우리동네 문화예술교육	중구
9	국악그룹 피네	전통	2020 꿈다락(인큐형)	금정구
10	그루잠 프로덕션	마술	2020 꿈다락(인큐형), 2021 꿈다락(일반형), 2022 꿈다락	금정구
11	극단 가마골	연극	2021 꿈다락(일반형)	기장군
12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연극	2022 황금빛예술학교	
13	극단 에저또	연극	2021 꿈다락(인큐형), 2020 꿈다락(일반형)	남구
14	극단 여운	연극	2020 꿈다락(일반형), 2021 꿈다락(일반형)	남구
15	극단 여정	뮤지컬	2018 지특, 2021 지특(일반형)	
16	극단 울도	연극	2022 예술로맨샴은일상	
17	극단 이야기	연극	2019 꿈다락(일반형), 2020 꿈다락(일반형), 2021 꿈다락(일반형)	남구
18	극단 자유바다	연극	2020 지특(일반형), 2022 꿈다락	기장군

No.	단체명	분야	사업 참여 현황	단체 소재지
19	극단 해풍	연극	2018 지특, 2019 꿈다락(기획형), 2020 꿈다락(기획형), 2021 꿈다락(기획형), 2022 꿈다락	북구
20	극단이야기 협동조합	기타	2020 꿈다락(인큐형)	동구
21	금정청소년수련관	음악	2019 꿈다락(기획형), 2020 꿈다락(기획형), 2021 꿈다락(기획형), 2022 꿈다락	금정구
22	꿈꾸는 베프	통합	2019 꿈다락(일반형), 2021 꿈다락(일반형), 2022 꿈다락	수영구
23	나는 팔레트를 든 관람객	미술	2020 꿈다락(인큐형)	서구
24	다다예술교육센터	무용	2019 꿈다락(일반형), 2020 꿈다락(일반형)	금정구
25	다원국악관현악단	전통	2019 꿈다락(일반형), 2020 꿈다락(일반형), 2021 꿈다락(일반형)	동래구
26	더드림아트센터	미디어	2019 꿈다락(일반형), 2020 꿈다락(일반형), 2021 꿈다락(일반형), 2022 예술교육실험실B	남구
27	더발레프로젝트	무용	2019 공간지원형 문화예술교육	
28	더클래식마음	음악	2019 공간지원형 문화예술교육	
29	덤플링스	미디어	2021 꿈다락(인큐형), 2022 꿈다락	금정구
30	데일리드라마	음악	2020 꿈다락(인큐형), 2021 꿈다락(일반형)	동래구
31	도시농업공동체 팜파크	미술	2019 꿈다락(일반형)	기장군
32	드림교육센터	통합	2020 꿈다락(일반형)	진구
33	드림꿈	미술	2021 지특(일반형), 2022 하우알유	
34	드림꿈센터	미술	2018 지특, 2020 꿈다락(일반형)	해운대구
35	디스프레스랩 (d:Spredlap)	미술	2019 창의예술교육랩(오픈랩 공모형), 2020 창의예술교육랩(확장지원형), 2020 꿈다락(인큐형)	강서구
36	모들	통합	2019 꿈다락(인큐형), 2020 꿈다락	북구

No.	단체명	분야	사업 참여 현황	단체 소재지
			(일반형), 2022 하우알유	
37	모이다 아트협동조합	미술	2018 지특, 2019 꿈다락(기획형), 2020 꿈다락(기획형), 2021 꿈다락(기획형), 2022 꿈다락	중구
38	문댄스프로젝트팀	무용	2019 꿈다락(일반형)	해운대구
39	문화기획 ACTs	연극	2019 꿈다락(일반형), 2020 꿈다락(일반형), 2021 꿈다락(일반형)	진구
40	문화로 외출하는 사람들 앤고	연극	2020 꿈다락(일반형), 2021 꿈다락(일반형)	사상구
41	문화배움공동체 들	통합	2019 공간지원형 문화예술교육	
42	문화소통연대이야기		2018 지특	
43	문화예술연구소 플랫폼	무용	2021 꿈다락 일반형, 2022 하우알유	남구
44	문화예술조은학교	연극	2019 꿈다락(일반형), 2021 꿈다락(일반형)	중구
45	문화콘텐츠교육연구소 큐브	미디어	2019 꿈다락(기획형), 2020 꿈다락(기획형), 2021 꿈다락(기획형), 2022 하우알유	해운대구
46	미디어교육연구소	연극	2018 지특, 2019 꿈다락(일반형)	금정구
47	바오마루	미술	2019 꿈다락 일반형	해운대구
48	바투아트	미술	2018 지특	
49	부산, 머물다		2022 하우알유	
50	부산로알필하모니오케스트라	음악	2020 꿈다락(일반형), 2021 꿈다락(일반형)	강서구
51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통합	2020, 2021, 2022 유아문화예술교육(연속형), 2021 지특 프로젝트형	
52	부산문화플랜협동조합	문화	2019 창의예술교육랩(오픈랩 공모형)	
53	부산예술단	전통	2019 꿈다락(기획형), 2020 꿈다락(일반형)	서구
54	부산자연예술인협회	미술	2019 꿈다락(기획형), 2020 꿈다락	서구

No.	단체명	분야	사업 참여 현황	단체 소재지
			(기획형), 2021 꿈다락(기획형), 2022 꿈다락	
55	(사)문화예술인적자원 개발센터	통합	2019 꿈다락(일반형)	금정구
56	사단법인 부산소설가협회	문학	2022 황금빛예술학교	
57	사단법인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문화	2022 예술교육실험실B	
58	사단법인 행복두드림	미술	2019 꿈다락(일반형)	사상구
59	사회적기업 (주)우다다목공소	미술	2020 꿈다락(인큐형), 2021 꿈다락(일반형), 2022 꿈다락	금정구
60	상상편집소 피플	통합	2018 지특, 2019 꿈다락(일반형), 2019 창의예술교육랩(오픈랩 공모형), 2020 꿈다락(일반형), 2021 꿈다락(일반형), 2022 꿈다락	중구
61	샘다움	미디어	2019 공간지원형 문화예술교육, 2020 꿈다락(인큐형), 2021 꿈다락(일반형)	북구
62	세라비 Ceravie	음악	2020 꿈다락(인큐형), 2021 꿈다락(일반형), 2022 예술로맨샴은일상	동구
63	세상과 소통하기	통합	2019 꿈다락(일반형), 2020 꿈다락(기획형), 2021 꿈다락(기획형), 2022 황금빛예술학교	동래구
64	소똥이		2020 창의예술교육랩(확장지원형)	
65	송협주관화공방	미술	2019 창의예술교육랩(오픈랩 공모형), 2020 꿈다락(일반형), 2021 꿈다락(일반형), 2022 꿈다락(인큐형),	부산진구
66	수민동락	영상	2020 지특(인큐형)	동래구
67	스타일		2022 하우스알유	
68	스텝아트컴퍼니	무용	2019 꿈다락(일반형)	부산진구
69	쓸모있는일연구소	연극	2019 꿈다락(일반형)	남구

No.	단체명	분야	사업 참여 현황	단체 소재지
70	아로새긴	뮤지컬	2019 꿈다락(일반형)	남구
71	아지무스 오페라단	음악	2020 꿈다락(일반형), 2021 지특(일반형)	북구
72	아트브릿지		2022 하우알유	
73	아트커뮤니티센터 라온	미술	2018 지특, 2019 꿈다락(일반형), 2019 창의예술교육랩(오픈랩 공모형), 2020 꿈다락(일반형), 2021 꿈다락(일반형), 2022 꿈다락	연제구
74	안녕, 예술가		2022 하우알유	
75	어린이심미교육연구회		2020 유아문화예술교육(일반형), 2021 유아문화예술교육(일반형), 2022 유아문화예술교육(일반형)	
76	예술심리교육연구회		2022 하우알유	
77	예술연구소 두드림		2018 지특	
78	예술장터	뮤지컬	2019 꿈다락(일반형), 2020 꿈다락(일반형), 2021 꿈다락(일반형), 2022 꿈다락	동구
79	오픈아츠 스페이스 머지	시각	2021 지특(프로젝트형)	
80	움직임연구소 마르	통합	2018 지특, 2019 창의예술교육랩(오픈랩 공모형), 2020 지특(일반형), 2021 지특(일반형)	해운대구
81	윈도심예술가협동조합 창	미술	2019 꿈다락(인큐형), 2020 꿈다락(일반형)	중구
82	울파란	전통	2019 꿈다락 일반형	남구
83	이드 잇	미술	2021 꿈다락(인큐형), 2022 꿈다락	금정구
84	인형극단 줄리	연극	2022 황금빛예술학교	
85	잉스문화예술교육연구소	통합	2019 유아문화예술교육, 2022 유아문화예술교육(일반형)	
86	전문예술법인 남산놀이마당	전통	2019 꿈다락(기획형)	금정구

No.	단체명	분야	사업 참여 현황	단체 소재지
87	정미숙 무용단	무용	2019 꿈다락(일반형), 2020 꿈다락(일반형), 2021 꿈다락(일반형), 2022 꿈다락	금정구
88	조용한수다 공연단		2022 하우알유	
89	(주)호밀밭	문학	2022 예술교육실험실B	
90	지아트	미디어	2021 꿈다락(인큐형), 2022 꿈다락	동래구
91	창작극 연구 극단 수진	연극	2019 꿈다락(일반형)	해운대구
92	창작미술연구소 크레아	미술	2021 꿈다락(인큐형), 2022 꿈다락	기장군
93	청춘나비	통합	2020 꿈다락(인큐형), 2022 꿈다락	수영구
94	커뮤니티아트센터 '숲'	통합	2018 지특, 2020 지특(일반형), 2022 우리동네문화예술교육	사하구
95	클라식 라디오	통합	2018 지특, 2020 지특(일반형)	사하구
96	통합예술창작 연구소 봄	미술	2021 꿈다락(인큐형)	동래구
97	프로젝트 팀 팬시		2019 창의예술교육랩(오픈랩 공모형), 2020 창의예술교육랩(확장지원형)	
98	플레이아트 놀터		2022 황금빛예술학교	
99	플레이뮤직	음악	2022 꿈다락	
100	피스 오브 클래식 (Peace of Classic)	음악	2019 꿈다락(일반형), 2020 꿈다락(일반형), 2021 꿈다락(일반형), 2022 꿈다락	사하구
101	피움문화예술교육연구소	미술	2019 꿈다락(일반형)	기장군
102	한국관화예술연구원	미술	2019 꿈다락(일반형), 2019 창의예술교육랩(오픈랩 공모형)	수영구
103	한국휴먼교육개발협동조합	미술	2019 꿈다락(일반형), 2021 꿈다락(일반형)	동래구
104	햇빛연극단	연극	2018 지특	
105	햇살나무도서관	문화	2018 지특	사상구

No.	단체명	분야	사업 참여 현황	단체 소재지
106	헤르츠아트컴퍼니	음악	2021 지특(일반형), 2022 하우알유	
107	“날아, born” play art center	전통	2019 꿈다락(일반형), 2020 꿈다락(일반형), 2021 꿈다락(일반형)	부산진구

5) 문화예술교육 공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프로그램을 수행한 공간과 「2018 부산 문화예술교육 종합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 파악한 공간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9] 부산 문화예술교육 공간 목록

No.	교육공간	소재지	사업 참여 현황
1	40계단문화관 생활문화센터	중구	2019 꿈다락, 2020 꿈다락, 2021 꿈다락
2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중구	2020 지특, 2021 지특
3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중구	2019 꿈다락
4	DOT미술관	금정구	2019 꿈다락, 2020, 2021 유아 문화예술교육
5	DRB 사회공헌플랫폼 Campus D	금정구	2019 꿈다락, 2020 꿈다락
6	Gachi공작소	강서구	
7	P플러스	금정구	
8	SOUL BOX	금정구	
9	가온누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사하구	
10	가온아트홀	동구	2020 꿈다락
11	감만창의문화촌	남구	
12	감성과소통교육원	동래구	2021 꿈다락
13	감전생활문화센터	사상구	

No.	교육공간	소재지	사업 참여 현황
14	강서구 평생학습센터	강서구	
15	강서기적의도서관 누리봄 공간	강서구	2020 꿈다락
16	강서문화원	강서구	
17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18	갤러리 대현	부산진구	2019 꿈다락
19	거제2동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연제구	2021 꿈다락
20	경성대학교박물관	남구	
21	경성대학교미술관	남구	
22	고은사진미술관	해운대구	2019 꿈다락, 2020 꿈다락
23	공간 나라	수영구	2021 지특
24	괘법동 주민센터	사상구	
25	교촌휴먼시아아파트 새마을문고	기장군	
26	구덕문화공원 민속생활관	서구	2019 꿈다락, 2021 꿈다락
27	구락생활문화센터	수영구	2020 꿈다락, 2021 꿈다락
28	구포1동 주민센터	북구	
29	국립부산과학관	기장군	2021 꿈다락
30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남구	
31	국립해양박물관	영도구	
32	그루잠 프로덕션	금정구	2020 꿈다락
33	극단 가마골	기장군	2021 꿈다락
34	극단 바라	부산진구	
35	극단 자갈치	금정구	
36	극연구집단 시나위	동래구	
37	금곡도서관	북구	
38	금곡종합사회복지관	북구	2019 꿈다락, 2020 꿈다락
39	금정구평생학습관	금정구	
40	금정문화원	금정구	
41	금정문화회관	금정구	
42	금정예술공연지원센터	금정구	2021 꿈다락

No.	교육공간	소재지	사업 참여 현황
43	금정청소년수련관	금정구	2019 꿈다락, 2020 꿈다락, 2021 꿈다락
44	기장군 평생교육센터	기장군	
45	기장문화원	기장군	
46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기장군	
47	기차집 예술체험장	서구	2020 지특
48	까치마을행복센터	사하구	
49	깡깡이생활문화센터	영도구	
50	꽃마을 Open Arts studio	서구	2019 꿈다락, 2021 꿈다락
51	낙동강문화관	사하구	
52	낙동문화원	북구	
53	낙동종합사회복지관	강서구	2020 꿈다락
54	난계국악기 제작촌	금정구	2021 꿈다락
55	남구평생학습센터	남구	
56	남구문화원	남구	
57	남구열린지역아동센터	남구	
58	남구진로교육지원센터	남구	2019 꿈다락
59	남산놀이마당	금정구	
60	눈메그림방	금정구	
61	느티나무도서관	해운대구	
62	부산광역시 다대도서관	사하구	
63	닥발골 행복문화 나눔터	서구	
64	당감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65	당감행복마루카페	부산진구	
66	당리동 행복복지센터	사하구	2020 지특
67	당리작은도서관	사하구	
68	당평비전 지역청소년센터	부산진구	
69	덕천종합사회복지관	북구	2021 지특
70	동구평생학습센터	동구	

No.	교육공간	소재지	사업 참여 현황
71	동구문화원	동구	
72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동구	
73	동구쪽방상담소	동구	
74	동그라미봉사단 상담소	영도구	2020 꿈다락, 2021 꿈다락
75	동네방네학습관 5호점 소리너름	사하구	
76	동대신3동 생활문화센터	서구	
77	동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래구	
78	동래구평생학습관	동래구	
79	동래구진로교육지원센터	동래구	2019 꿈다락
80	동래문화원	동래구	
81	동래문화회관	동래구	
82	동래시장번영회 교육실	동래구	
83	동아대학교 석당미술관	서구	
84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서구	
85	동의대학교박물관	부산진구	
86	동재국악기연구원	금정구	2019 꿈다락, 2020 꿈다락
87	동주대학교박물관	사하구	
88	동화랑놀이 어린이도서관	부산진구	2019 꿈다락
89	두송생활문화센터	사하구	
90	또따또가 Art SAGA	중구	
91	또따또가 느긋한 서재	중구	2020 꿈다락, 2021 꿈다락
92	또따또가 스튜디오 401	중구	
93	록봉민속교육박물관	강서구	
94	마을기업 Café나무	해운대구	
95	마음나누기 미술심리상담센터	금정구	2020 꿈다락
96	만디도서관	해운대구	2020 꿈다락
97	명륜지역아동센터	동래구	
98	모라종합사회복지관	사상구	
99	문화공간 앤고	사상구	

No.	교육공간	소재지	사업 참여 현황
100	문화매개공간 째	수영구	
101	문화예술소통연구소 길가온	금정구	2019 꿈다락, 2020 꿈다락
102	문화예술조은학교	중구	2021 꿈다락
103	문화예술치유단체 쉼라비 연습실	강서구	2020 꿈다락, 2021 꿈다락
104	문화예술플랫폼 B	북구	
105	미라클 사회서비스센터	수영구	
106	미애원	동구	
107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수영구	
108	바람길작은도서관	수영구	
109	바투아트	기장군	
110	반여2동 주민센터	해운대구	
111	부산광역시 반여도서관	해운대구	
112	범어사 정보박물관	금정구	
113	범일1동 주민센터	동구	
114	범일생활문화센터	동구	
115	보수동책방골목 어린이도서관	중구	2021 꿈다락
116	북천박물관	동래구	
117	부경대학교박물관	남구	
118	부민아동보호종합센터	서구	
119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민속자료실박물관	북구	
120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북구	
121	부산광역시립반송도서관	해운대구	2020 지특, 2021 지특
122	부산광역시립사하도서관	사하구	2019 꿈다락, 2020 꿈다락, 2021 꿈다락
123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박물관 (한새뮤지엄)	연제구	
124	부산구덕문화공원	서구	
125	부산근대역사관	중구	

No.	교육공간	소재지	사업 참여 현황
126	부산대학교박물관	금정구	
127	부산도예교육센터	기장군	2019 꿈다락
128	부산문화회관	남구	
129	부산민주공원	중구	
130	부산박물관	남구	
131	부산북구디지털도서관	북구	
132	부산시립미술관	해운대구	
133	부산시민공원 다솜관	부산진구	2020 꿈다락
134	부산시민공원 문화예술촌	부산진구	2019 꿈다락, 2020 꿈다락, 2021 꿈다락
135	부산시민회관	동구	
136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해운대구	2019 꿈다락, 2020 꿈다락, 2021 꿈다락
137	부산아시아영화학교	수영구	2021 꿈다락
138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진구	
139	부산여자대학교 한국차박물관	부산진구	
140	부산예술단	서구	2019 꿈다락, 2020 꿈다락
141	부산예술회관	남구	2019 꿈다락, 2020 꿈다락
142	부산장애인부모회 기장 해운대지회	기장군	
143	부산장애인종합회관	동구	2020 꿈다락
144	부산진구 청년창조발전소	부산진구	2019 꿈다락
145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부산진구	
146	부산진구 평생학습관	부산진구	
147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진구	2019 꿈다락
148	부산진문화원	부산진구	
149	부산콘텐츠코리아랩	해운대구	
150	부산평생교육진흥회	동래구	
151	부산포민속박물관	부산진구	
152	부산학부모연대	연제구	

No.	교육공간	소재지	사업 참여 현황
153	부산학부모지원센터	동래구	2019 꿈다락
154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동래구	2020 꿈다락, 2021 지특, 2021 꿈다락
155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동래구	
156	북구문화빙상센터 문화예술회관	북구	
157	북구 평생학습센터	북구	
158	창조문화활력센터	북구	2021 꿈다락
159	비콘그라운드 플레이그라운드	수영구	2021 꿈다락
160	사)문화복지공감	부산진구	2021 지특
161	사단법인 푸른마을	사상구	
162	사상구청소년수련관	사상구	
163	사상구평생학습관	사상구	2021 꿈다락, 2020 꿈다락
164	사상구진로교육지원센터	사상구	
165	사상도서관	사상구	
166	사상문화원	사상구	2019 꿈다락, 2021 꿈다락
167	사상생활사박물관	사상구	
168	사하구평생학습관	사하구	
169	사하문화원	사하구	
170	산아래 마을학교	부산진구	
171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영도구	
172	새생명아동지원센터	금정구	2020 꿈다락
173	서구평생학습관	서구	
174	서구문화원	서구	
175	서동예술창작공간	금정구	2019 꿈다락, 2020 꿈다락, 2021 꿈다락
176	선임지역아동센터	동구	
177	성원아트홀	강서구	2021 꿈다락
178	성지지역아동센터	부산진구	2019 꿈다락
179	소셜캠퍼스온 부산	수영구	2019 꿈다락

No.	교육공간	소재지	사업 참여 현황
180	송협주관화공방	부산진구	2019 꿈다락, 2020 꿈다락, 2021 꿈다락
181	수영구도시재생지원센터	수영구	2020 지특
182	수영구평생학습관	수영구	
183	수영구도서관	수영구	
184	수영구도서관 망미분관	수영구	
185	수영구생활문화센터	수영구	2019 꿈다락, 2020 꿈다락, 2021 꿈다락
186	수영성마을박물관	수영구	2019 꿈다락
187	스텝아트컴퍼니	부산진구	2019 꿈다락
188	신라대학교박물관	사상구	
189	신호동 평생교육센터	강서구	
190	실버힐링센터	사하구	2020 지특
191	아동보호종합센터	서구	
192	아미골문화학습관	서구	2020 지특
193	아이쿱 남부산 생협	수영구	
194	아트커뮤니티센터 라온	연제구	2019 꿈다락, 2020 꿈다락, 2021 꿈다락
195	안데르센극장	기장군	2020 지특
196	안락뜨란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동래구	2021 지특
197	양정청소년수련관	부산진구	
198	어린이 도서관 Mom&Kid	북구	
199	연제구평생학습센터	연제구	
200	연제도서관	연제구	
201	연제문화원	연제구	
202	연지문화원	부산진구	
203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	영도구	
204	영도구평생학습관	영도구	
205	영도도서관	영도구	

No.	교육공간	소재지	사업 참여 현황
206	영도문화예술회관	영도구	
207	영도문화원	영도구	
208	영도어린이영어도서관	영도구	
209	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영도구	
210	영화의전당	해운대구	2020, 2021, 2022 유아문화예술교육
211	예술문화연구소—지식닝쿨	해운대구	
212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금정구	
213	오픈스페이스 배	해운대구	
214	오픈아츠 스페이스 머지	금정구	2021 지특
215	온기 옛더 모먼트즈	동래구	2020 꿈다락
216	온천제일지역아동센터	동래구	
217	옹달샘지역아동센터	영도구	
218	용천소극장	남구	
219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남구	
220	우다다목공소	금정구	2020 꿈다락, 2021 꿈다락
221	우암동 마을지기사무소	남구	
222	유엔평화기념관	남구	
223	을숙도문화회관	사하구	2020 꿈다락, 2021 꿈다락
224	음악당 라온	금정구	2020 지특
225	이주민문화센터	사상구	
226	이주홍문학관	동래구	
227	인디고 서원	수영구	
228	임시수도기념관	서구	
229	장기려기념 더 나눔센터	동구	
230	장애인 참배움터	부산진구	
231	재송어린이도서관	해운대구	
232	전포생활문화센터	부산진구	
233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2019 꿈다락

No.	교육공간	소재지	사업 참여 현황
234	정관LH 5단지 작은도서관	기장군	2020 꿈다락
235	정관박물관	기장군	
236	정관어린이도서관	기장군	
237	조선통신사역사관	동구	2021 꿈다락
238	좌천생활문화센터	동구	
239	(주)다운산마을	동구	
240	주례1동 주민센터	사상구	
241	중구 산복도로 커뮤니티문화센터	중구	
242	중구평생학습센터	중구	
243	지아트센터	남구	
244	청소년문화공간 모모	금정구	
245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놀이마루	부산진구	2020 꿈다락
246	초량3동 주민센터	동구	2019 꿈다락, 2020 꿈다락, 2021 꿈다락
247	충무동 새벽시장상인회 교육장	서구	
248	충무동생활문화센터	서구	
249	김스아트필드미술관	금정구	
250	통합문화예술교육마당 얼굴	부산진구	2019 꿈다락, 2020 꿈다락, 2021 꿈다락
251	티엘갤러리	수영구	
252	팜파크	기장군	2019 꿈다락
253	평심마을문화원	연제구	
254	필그림 콘서트홀	남구	
255	한결아트홀	연제구	
256	한광미술관	중구	
257	한국기독교 선교박물관	동래구	
258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기장군	
259	한국판화예술연구원	수영구	2019 꿈다락
260	한국해양대학교박물관	영도구	

No.	교육공간	소재지	사업 참여 현황
261	한국휴먼교육개발협동조합	동래구	2019 꿈다락
262	한성1918	중구	
263	해운대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해운대구	
264	해운대 평생학습늘배움터	해운대구	
265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	해운대구	
266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운대구	2019 꿈다락
267	해운대문화원	해운대구	
268	해운대문화회관	해운대구	
269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해운대구	
270	해운대인문학도서관	해운대구	
271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	해운대구	2019 꿈다락
272	햇살나무도서관	사상구	
273	홍티아트센터	사하구	2020 꿈다락
274	화명도서관	북구	
275	화정종합사회복지관	북구	2019 꿈다락, 2020 꿈다락, 2021 꿈다락, 2021 지특
276	희망정류소	동래구	2020 지특

부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사업 추진기관은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만 별도 기관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으며, 2022년 현재 부산문화재단 문화교육팀에서 수행하고 있다.

부산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기구로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가 있다. 부산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부산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관련 사업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주체다. 위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시교육청, 시의회를 비롯해 교사,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인, 학계 전문가, 학부모, 관련 시설 및 단체 관계자로 구성했으며, 1기(2019.1~2021.1)에 이어 현

제 2기(2022.10~2024.10)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1기의 경우, 회의 개최 빈도가 매우 낮아 지역 수요 기반 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광범위한 의견 개진 및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하여 한계가 자명했다. 부산문화재단 주도로 설치된 부산 문화예술교육 실무협의체는 부산문화재단, 부산시, 교육청, 교원, 전문가, 문화예술교육 현장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개최 지원, 종합계획 및 지역 내 협력사업 논의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부산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한 단체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업 결과를 집계했을 때 107개 단체로 나타났다. 단체 소재지는 16개 구·군에 다양하게 분포해 있는 편이며, 꿈다락, 지역특성화, 창의예술교육랩, 2022년 하우알유, 황금빛예술학교, 예술교육실험실B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운영 프로그램의 주제는 매우 다양하며, 다채로운 내용에다 수준 또한 비교적 높은 편이다.

2019년~2021년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수행한 문화예술교육 공간은 270여 곳으로 집계되었다. 공공 공연장, 문화예술단체 전용 공간, 문화기반시설,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공유공간, 공원, 문화원, 사회복지시설, 문화복합공간,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센터, 주민센터, 시장상인회 교육공간 등 성격이 매우 다양한 편이다. 프로그램 추진 시 단체 자체 공간을 활용한 경우도 있지만, 협력기관의 공간을 활용하거나 주제와 대상에 따라 장소를 대관한 경우도 있었던 까닭이다. 생활권역 내 지역의 여러 공간을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적극 활용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확장과 심화를 견인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특화 공간이 부족한 점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새로운 공간 발굴과 활용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일정한 규모의 부산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을 확보하는 일은 부산문화예술교육의 미래를 선취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다.

2. 제1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이행 결과 분석

1) 2018~2021년 추진사업 개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문화재단 문화교육팀(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5개 영역, ① 학교문화예술교육, ② 사회문화예술교육, ③ 미래문화예술교육·인력양성·역량강화, ④ 정책 및 학술 연구조사·신규 프로그램·연구개발, ⑤ 네트워크·아카이빙·홍보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차 부산종합계획(2018~2022)의 추진전략 중 ‘I.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생태계화’와 ‘Ⅲ.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고도화’가 연관되는 영역은 ③ 미래문화예술교육·인력양성·역량강화, ④ 정책 및 학술 연구조사·신규 프로그램·연구개발, ⑤ 네트워크·아카이빙·홍보이고, ‘II. 문화예술교육의 수요 특성화’는 ① 학교문화예술교육, ②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이다.

[표 10] 제1차 정부/부산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과 추진전략별 연관 사업 영역

구분	제1차 정부종합계획 (2018~2022)	제1차 부산종합계획 (2018~2022)	연관 사업 영역
비전	삶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육	삶을 가꾸는 문화예술교육	-
추진 전략	I.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I.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생태계화	③ 미래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역량강화 ④ 정책 및 학술 연구조사· 신규 프로그램·연구개발 ⑤ 네트워크·아카이빙·홍보
	II.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II. 문화예술교육의 수요 특성화	① 학교문화예술교육 ② 사회문화예술교육
	III.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III.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고도화	③ 미래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역량강화 ④ 정책 및 학술 연구조사· 신규 프로그램·연구개발 ⑤ 네트워크·아카이빙·홍보

[표 11] 2018~2022 부산문화예술교육 사업 및 세부 사업 추진 현황

㉔: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영역의 중점사업
 ㉕: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영역의 중점사업
 ㉖: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영역의 중점사업

영역	사업				
	2018	2019	2020	2021	2022
학교 문화예술교육	㉕ 어린이무형문화재교실	어린이무형문화재교실	어린이무형문화재교실	어린이무형문화재교실	어린이무형문화재교실
	㉕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회 문화예술교육	㉕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㉕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㉕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가을독서문화축제			신중년인문학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독서·인문학 활성화 지원	독서·인문학 활성화 지원	독서·인문학 활성화 지원	독서·인문학 활성화 지원	
	도시철도 북 하우스 운영	도시철도 북 하우스 운영	도시철도 북 하우스 운영	도시철도 북 하우스 운영	

미래문화예술 교육 인력양성 역량강화		㉑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	
	㉑ 부산문화예술교육 인력 연수(ABC School) 파일럿 운영	㉑ 부산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 프로그램 (ABC School) 운영	㉑ 지역문화예술교육 연수 프로그램 (BS ARTE) 운영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연수 프로그램	BS ARTE 아카데미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㉑ 문화예술행정아카데미	문화예술행정아카데미	문화예술행정아카데미		BS ARTE 아카데미 (교원연수)
		㉑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지원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지원
	자율연구개발개발 지원	자율연구모임	㉑ 문화예술교육 자율연구모임	문화예술교육 자율연구모임	
정책 및 학술 연구조사 신규 프로그램 연구개발		㉒ 공간지원형 문화예술교육	노마드 문화예술교육	공간 문화예술교육	공간 문화예술교육
	지역협력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 연구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연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문화예술교육 연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아카이빙 홍보	㉒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네트워크 활성화	네트워크 협력	네트워크 협력 구조 구축	
		㉒ 지역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축제 <예술교육 온종일 파티>	지역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사업 <예술교육 릴레이 파티>	지역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사업 <예술교육 릴레이 파티>	부산 문화예술교육 페스티벌 <와르르, 우르르, 모아>
	㉑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플랫폼 운영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플랫폼 운영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플랫폼 운영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플랫폼 운영

			문화예술교육 총서 발간	문화예술교육 총서 발간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0주년 기록서 발간	
					문화예술교육 홍보 사업

2) 이행 결과 분석

(1) 이행 현황

[표 12] 제1차 부산종합계획(2018~2022) 이행 내역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중점 사업	추진 내역	주요 내용	이행 내역
문화예술 교육의 지역 생태계화	[조직] 지역 중심의 추진체계 강화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		이행	◦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1, 2기 구성 완료	3개 과제 중 3개 이행 (변경 1개)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이행	◦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 센터로서의 역할 ◦ 문화예술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 역할 강화(부산시교육청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 창의융합교육랩 거점 역할(국립부산과학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개발 기능 강화)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이행 (변경)	◦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수립을 위한 자문 추진 ◦ 2022년 영도구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선정	
	[자원] 문화예술교육 자원 확충	유희공간 활용 예술놀이터 조성		이행 (변경)	◦ 2018 유희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꿈꾸는 예술터’ 거점형 1차 선정 → 부지 문제로 사업 포기	4개 과제 중 3개 이행 (변경 2개)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중점 사업	추진 내역	주요 내용	이행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꿈꾸는 예술터’ 밀착형 1차 선정 → 구비 매칭 문제로 사업 포기 	
		예술교사 레지던스 예술가의 배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와 인력 부족 문제로 사업 미운영 	
		학교 연계 문화예술교육 ‘예술로 꿈길’	○	이행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로 꿈길’ → 유사한 성격의 사업인 ‘어린이무형 문화재 교실’을 운영 - 지역 전통 문화재 기관 연계의 초등학교 대상 무형 문화재 체험 프로그램 지원(부산농악 등 6개 분야)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	○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개발 연구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연수 프로그램 ‘ABC School’, ARTE 아카데미 등 운영 지역 공무원, 교육행정가, 교원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행정아카데미’ 운영 	
	[협력]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강화	시 유관부서 실무협의회 구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운영 	4개 과제 중 3개 이행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광역, 기초, 시·광역·기초)	○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 업무 협약,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간담회, 기관 협력 및 연계 기획 사업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축제 운영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중점 사업	추진 내역	주요 내용	이행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 방향성 공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총서 발간 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망 구축 	
		지역 간 교류 활성화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근지역 간(부울경) 합동 연수 	
		국제교류 활성화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 창의예술교육 국제 심포지엄 개최 2022 문화예술교육 국제포럼 개최 문화예술교육 총서 발간 시 해외 저자를 함께 구성, 국외 동향 공유 	
문화예술 교육의 수요 특성화	[대상]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통한(2019~)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확산 	7개 과제 중 6개 이행
		학교예술강사 지원	○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악분야 학교예술강사 파견(민간위탁 형태로 운영) 	
		소외아동 꿈의 오케스트라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외 아동·청소년 대상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예술가 성장을 위한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예술가 파견, 동아리·예술가 협업, 교류 프로그램 등) 	
		직장인 예술포차(가칭)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상황, 인력 부족, 생활문화 지원 영역과 중복되어 사업 미운영 	
		황금빛 예술학교(가칭) 운영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 생애주기 특화지원 '황금빛 예술학교' 운영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중점사업	추진내역	주요 내용	이행 내역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이행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공모사업 운영	
	[장르] 장르특성화 프로그램	장르특화형 프로그램 지원		이행	◦ 지역 전통 문화재 관련 학교문화예술교육 운영(‘어린이무형문화재 교실’)	2개 과제 중 2개 이행
		교육청 협력 모델 발굴		이행	◦ 부산시교육청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놀이마루’의 문화예술진로체험 프로그램 보급 ◦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대상의 ‘문화예술 행정아카데미’ 진행	
	[지역]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모델 발굴		이행 (변경)	◦ 지역 자치구와 협력하여 지역협력형/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및 지원 ◦ 지역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축제를 진행하여 문화예술교육 모델 발굴, 실행 ◦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자율연구모임 운영 ◦ 문화예술교육 질적 고도화를 위한 모델 발굴을 위해 사업비 증가	2개 과제 중 2개 이행 (변경 2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	이행 (변경)	◦ 지역밀착형, 자생적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발굴, 문화공동체 모델 개발 ◦ 신규단체 진입을 위한 인큐베이팅 유형 운영 ◦ 지원단체 수 감소로 사업비 변경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중점사업	추진내역	주요 내용	이행 내역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고도화	[연구] 콘텐츠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역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	이행	◦ 문화예술교육 연구 수행을 통한 지역 현안 파악과 개선방안 강구	3개 과제 중 2개 이행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평가시스템 마련	○	-	◦ 재단 자체 개발 심의 평가 시스템 활용	
		창의예술교육연구소 운영	○	이행	◦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으로 운영 - 2019 창의예술교육연구소 운영 →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 기관연계 협력형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단체 공모형 프로그램, 아이디어발굴형 해커톤 개최 - 2020 신규개발형, 확장지원형 운영 - 2021 전년도 사업 심화 형태로 재편하여 아이(AI) 농악과 아트사이로 운영	
	[산업] 문화예술교육의 산업화 자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	이행	◦ 청년 문화예술교육사 발굴·육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관련 일자리 창출 기여(문화시설에 교육사 배치) ◦ 2021년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3개 과제 중 3개 이행 (변경 2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마켓 운영		이행 (변경)	◦ 유사한 성격의 사업인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파티’ 운영(모텔 개발, 성과 공유)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적경제 지원		이행 (변경)	◦ ‘문화로공간 창업지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추 - 사업명 변경에 따라 사업비도 변경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중점 사업	추진 내역	주요 내용	이행 내역
	[관리] 체계적인 지원 관리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	이행	◦ 문화예술교육 자원·정보 관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bsarte.bscf.or.kr)	3개 과제 중 3개 이행
문화예술교육지도 작성			이행	◦ 온라인 플랫폼 내 지도 구축 및 결과자료집 등 다른 형태의 자료로도 자원 구축		
문화예술교육 홍보 강화			이행	◦ 문화예술교육 홍보 강화(문화예술교육 페스티벌 개 최,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언론사 간담회 개최 등) ◦ 2022년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캐릭터 개발,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전달 등을 위한 애드보커시 영 상 제작 등 홍보 활성화 강화		

* 위의 표는 이행상황 점검 현황과 추진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이행 내용을 확인한 것이며, 예산 항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예산

[표 13] 2018~2020 추진전략별 예산 현황

추진전략	추진과제	예산(2018~2020)					
		계획	집행	변동	계획	집행	변동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생태계화	[조직] 지역 중심의 추진체계 강화	9.90억원 (5.48%)	5.83억원 (4.39%)	4.07억원 감소	77.9억원 (43.09%)	26.77억원 (20.18%)	51.13억원 감소
	[자원] 문화예술 교육자원 확충	66억원 (36.51%)	19.6억원 (14.77%)	46.40억원 감소			
	[협력]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강화	2억원 (1.11%)	1.34억원 (1.01%)	0.66억원 감소			
문화예술교육의 수요 특성화	[대상]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66.28억원 (36.67%)	74.54억원 (56.19%)	8.26억원 증가	79.97억원 (44.24%)	87.98억원 (66.32%)	8.01억원 증가
	[장르] 장르특성화 프로그램	2억원 (1.11%)	-	2억원 감소			
	[지역]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11.69억원 (6.47%)	13.44억원 (10.13%)	1.75억원 증가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고도화	[연구] 콘텐츠 연구개발 역량 강화	9.5억원 (5.26%)	8.05억원 (6.07%)	1.45억원 감소	22.9억원 (12.67%)	17.91억원 (13.50%)	4.99억원 감소
	[산업] 문화예술교육의 산업화 자원	12억원 (6.64%)	7.74억원 (5.83%)	4.26억원 감소			
	[관리] 체계적인 지원 관리	1.4억원 (0.77%)	2.12억원 (1.6%)	0.72억원 증가			

출처: 김상원 외,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2018~2022) 이행상황 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 82쪽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계획한 예산은 총 180.77억원으로, 실제 집행금액은 132.66억원이다. 계획 대비 48.11억원(-26.6%)이 감소한 셈이다.
-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생태계화’는 51.13억원이 감소하여 계획 대비 변동 폭이 컸다. 변동 차액의 약 90%는 ‘문화예술교육 자원확충’ 분야에서 감소되었다(46.4억원 감소, -27.74%). 이는 ‘유희공간 활용 놀이터 조성’ 사업의 중단과 ‘예술교사 레지던스 예술가의 배낭’ 사업의 미추진, ‘학교 연계 문화예술교육 예술로 꿈길’이 타 사업으로 대체·운영된 점이 주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 ‘문화예술교육의 수요 특성화’는 8.01억원이 증가하여 추진전략 3개 중 가장 큰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이 증액된 과제는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이었다. 반면 ‘장르특성화 프로그램’에 책정된 2억원은 전액 집행되지 않았다.
-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고도화’는 세 전략 중 가장 변화가 적었다. 3개 과제 중 ‘문화예술교육의 산업화 지원’ 예산이 크게 축소되었는데, 기존에 책정된 12억원 중 4.26억원이 감소하였다.

(3) 추진전략별 현황

[표 14] 제1차 부산종합계획(2018~2022) 이행 현황

추진전략	추진 과제	추진과제수 (계획)	이행과제수 (결과)	미이행 과제(사유)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생태계화	조직	3	3	
	자원	4	3	◦ 예술교사 레지던스 예술가의 배낭 (코로나19와 인력 부족 문제로 사업 미운영)
	협력	4	3	◦ 시 유관부서 실무협의회 구성
	소계	11	9	
문화예술교육의 수요 특성화	대상	7	6	◦ 직장인 예술포차 운영(가칭) (코로나19 상황, 인력 부족, 생활문화 지원 영역과 중복되어 사업 미운영)

추진전략	추진 과제	추진과제수 (계획)	이행과제수 (결과)	미이행 과제(사유)
	장르	2	2	
	지역	2	2	
	소계	11	10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고도화	연구	3	2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평가시스템 마련(재단 자체 개발 심의 평가시스템 활용)
	산업	3	3	
	관리	3	3	
	소계	9	8	
총계		31	27	

- 전체 31개 과제 중 27개를 추진하여 이행률 87.09%를 보였다.
- 이행한 27개의 과제 중 7개 과제가 기존 계획에서 변경되어 추진되었다. 변경 사유는 다양하다. 코로나19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외부 요인(부지 확보, 구비 매칭)으로 중단된 경우,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나 결과물로 대체 추진된 경우, 사업 목적은 유지하되 사업 특성이나 내용을 재편한 경우, 계획보다 사업 범위가 확대되거나 축소되어 사업비가 변경된 경우 등이 있다.
- 미이행 사유를 살펴보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과 인력 부족 문제, 생활문화 영역과의 중복에 의한 것이었다. 재단이 구축하고 있는 자원을 대체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① 문화예술교육 지역 생태계화

- 11개 과제 중 9개를 이행하였다.
- 공간, 교육자, 매개자, 향유자 측면에서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자원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2018 부산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는 부산 문화예술교육 한계점 중 하나로 ‘문화예술교육 지역 생태계 취약성’을 꼽은 바 있는

데, 약 5년간의 과제 추진으로 이러한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폭넓고 적극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전용 공간 확보,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정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재단 자체 평가가 있었다.
-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는 실제 개최 빈도가 낮아 지역 수요 기반 문화예술 교육정책 추진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위원 의견 수렴과 합의 도출에 이르기까지는 역부족이었다.

② 문화예술교육의 수요 특성화

- 11개 과제 중 10개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아, 성인, 실버세대 대상의 프로그램이 마련되면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과제의 성장이 돋보인다. 예산(2018년~2020년) 또한 기존 66.28억원(36.67%)에서 8.26억원이 증가하면서 해당 추진전략의 과제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56.19%).
- ‘장르특성화 프로그램’ 과제는 2개 모두 이행되었으나, 일부 장르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
- 축제, 자율연구모임 지원,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 2019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예산이 통합·편성되면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재편이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다는 자체 평가는 지역화 전략의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 교육수혜자장르 불균형, 단발성 운영의 한계, 균질성 부족 현상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 대상자 명확화, 장르별 특성화, 균질성 및 연속성 확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재단 자체 진단이 있었다.
- 소외계층이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담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부산 문화예술교육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시그니처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③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고도화

- 9개 과제 중 8개를 이행하였다.
- 지역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수행을 통해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 ‘문화예술교육의 산업화 자원’ 마련 과제는 인력 배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과 같은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문화예술교육의 자생력 강화’라는 영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다. 예산은 책정된 금액의 64.5%(7.74억원)만이 집행되어 다소 소극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문화예술교육 담론을 담아내는 총서와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발자취와 성과를 수습하는 기록서를 발간하여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황과 자원을 아카이브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아카이브 자료들이 각각의 형태로 산재되어 있는 까닭에 이들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축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평가시스템은 재단 자체 개발 심의 평가시스템으로 대체 활용하였다. 다만, 각 지원사업별 컨설팅 지표 마련과 수행단체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환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Ⅲ.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 방향성 설정

1. 문화예술교육 환경의 변화

1) 문화예술교육 환경

(1) 문화예술의 가치 사슬 확대와 문화역량의 필요성 대두

- 현대사회는 여행, 스포츠, 예술, 음식, 패션, 영화, 자동차, 게임, TV, shorts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번창하는 문화자본주의 시대다. 문화적 경험이 상품이 되는 이 시대는 언어, 의식주, 관습 등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인간 경제활동에 문화적 요소가 부가가치 창출의 새로운 원천이 되는 문화경제(cultural economy)와 문화사회(culture society)의 도래로 문화예술의 가치 사슬이 문화적 가치에서 경제적·사회적 가치로 확장되었다.
- 국가의 문화정책은 문화적 경험 창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예술가와 문화 및 창조 분야 전문가의 권리’와 ‘국민(시민)의 문화적 표현 권리’ 보장을 핵심적 요소로 재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국제사회가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러한 추세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정책의 재구성(UNESCO, 2015, 2018), 「문화기본법」 제정(2013),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201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2021)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 문화예술교육은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를 통해 오늘날 문화경제와 문화사회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 양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2)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수요 증대

- 문화예술의 가치 사슬 확장에 따라 국가 및 지역의 문화적 역량의 중요성이 대두

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더욱 심화되었다.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을 통한 정서 함양뿐만 아니라 예술을 통한 미적 감성 계발, 문화적 감수성 고양,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공존, 공감과 소통 능력 향상 등과 같은 문화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창의적 인재가 갖추어야 할 일반 능력인 도구 사용 능력과 타인과의 상호작용 능력, 자기조절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준다(DeSeCo project, UNESCO, 1997). 현대사회에 들어 여가시간 확대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 및 문화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적 감성 계발 및 공감과 소통 능력과 같은 문화적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 슐체(Gerhard Schulze)에 의하면, 체험(문화적 경험)이 경제가 되는 체험사회에서 자기만족은 단지 상품 구매에만 그치지 않는다. 내적 느낌의 만족, 즉 자기 삶의 경험과 취향을 자유롭게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 충족에서 자기만족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현상은 프로슈머의 등장, 생활문화 강좌와 동호회의 확산, 메이커 페어 등 시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의 수요 역시 증대될 수밖에 없다.

(3) 학교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 문화사회에서 과학적·수학적 지식보다는 개인의 경험 속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지식이 더 중요해졌다. 오늘날 창의성은 이러한 기존의 경험과 지식을 가공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이 ‘지식 전달’에서 ‘역량 배양’으로 바뀌고 있다. 교육은 교사의 지식과 경험보다는 소질과 재능, 창의성과 인성, 공감과 소통 능력과 같은 학습자의 잠재적 능력을 발견하고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은 창의·융합형 인재, 자기주도형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국제기구에서는 지구의 미래를 구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UNESCO, 2021). 특히 양질의 평생교육은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포용성과 평등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는 한편, 인권과 평화를 자신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장기간의 문화운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교육은 혁신되어야 한다. 새로운 교육은 협력과 협동, 그리고 연대의 원칙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적·사회적·도덕적 역량을 함양하고, 편견과 구별에 대한 탈학습(unlearning)을 포함해야 한다.

- 교육방식의 혁신이 중요하다. 교육은 은행의 저금통장처럼 교사의 지식과 관점을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주입식-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서로 배우고 그 과정을 즐기는 ‘서로 배움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 배움교육은 학교 내에서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통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세계에 대한 충실한 만남을 주선하는 매개자다. 문화예술교육은 자기만의 경험을 통해 자기만의 느낌을 느끼고, 그 느낌을 설명하고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만의 지식과 정서, 삶의 태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움교육에 적합하다.
- 학교는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역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4) 불안과 불확실성의 시대, 회복력 필요

- 현대사회는 기후위기, 사회양극화, 민주주의의 후퇴, 불안정한 노동의 증가, 재난과 불평등을 일상화하였다. 이에 따라 현대인은 소외와 불안,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지식 중심의 사회에서 지식을 재가공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시대로 전환하였다. 인류 앞에 놓인 수많은 경쟁과 갈등은 미래를 선불리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불안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었다. 회복탄력성은 어려움과 실패에 맞닥뜨렸을 때 좌절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시련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말한다.

- 예술은 주어진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볼 수 있게 해주고, 내면의 괴로움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무너진 삶을 수습하고 자아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공동의 언어와 체험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극복하는 길을 제공함으로써 ‘함께’라는 연대의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³⁾ 이러한 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자신과 세계의 상호작용을 성공적인 과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교육이며, ‘함께할 수 있는’ 심신의 능력과 태도를 형성하는 문화역량 강화, 즉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적합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 회복탄력성을 회복적 정의와 함께 사고해야 하는 만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사회구조적 모순을 은폐하는 문화예술교육 위싱(art education-washing)에 대해서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

(5)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 기술혁신은 산업과 직업의 구조를 변형시키기 때문에 항상 저항을 불러왔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은 문화예술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기도 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예술의 경계를 끝없이 확장하고 있는 점은 문화예술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로봇 등 자동화로 대체될 확률이 낮은 30개 직업 중 상위 50%가 문화예술 관련 직종인 만큼 문화예술 관련 직업은 미래 환경에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는다.⁴⁾
- 문화예술은 문화경제의 원천자원이 될 수 있다. 오늘날 공유와 참여, 소통, 협력과 혁신 등 크리에이터로서의 역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교육과 기술의 융합에 대한 요구로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때 디지털 기술과 문화예술교육의 융합을 방법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기술과 예술의

3) 김찬호,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사회적 가치의 탐색」, 『2021 문화예술교육 이슈리포트 통합본』, 2021. 17-19쪽.

4) 장길수 기자,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되는 직업 순위는?」, 『로봇신문』, 2016.03.24.,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48> (2022.11.22.검색).

융합을 통해 개인의 성장은 물론이고 인간 삶의 문제해결을 위한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 한편, 디지털 사회는 디지털 격차와 같은 부정적 영향에 직면하고 있다. 문화예술 교육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6) 사회변화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재인식

- 현대사회는 기술혁명과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변인 속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인간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로다. 특히 2000년 이후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속에서 문화예술의 창작, 유통, 소비, 향유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젠더와 섹슈얼리티, 민족, 지역, 세대와 같은 요인이 촉발하는 다양한 격차와 갈등, 차별과 혐오, 재난의 일상화, 기후위기, 검열과 미디어 통제, 지방소멸 등도 문화예술이 직면한 주요 도전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며, 문화예술교육은 사회변화가 초래한 다양한 쟁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2) 지역 환경

(1) 인구 동향 및 정책 환경

① 주요 인구 동향

- 지난 1년간 부산광역시 총인구는 3,358,763명(2021.10)에서 3,331,444명(2022.9)으로 27,319명이 감소했다.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이동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표 15] 2022년 부산광역시 인구 추이

구분	인구	고령자	전입 전출	출생	사망
2022.9	3,331,444(-3,151)	703,186(21%)	-1,544(2022.7)	1,266	2,279
8	3,334,596(-2,142)	699,677(20.9%)	-726(2022.6)	1,135	1,804
7	3,336,737(-1,430)	697,279(20.8%)	-1,121(2022.5)	1,137	1,923
6	3,338,167(-2,047)	695,347(20.8%)	-1,588(2022.4)	1,325	2,325
5	3,340,214(-3,290)	693,185(20.7%)	-1,988(2022.3)	1,210	2,963
4	3,350,380(-3,247)	681,885(20.35%)	-1,507(2021.11)	939	2,324
3	3,347,396(-1,478)	688,772(20.5%)	-613(2022.1)	1,235	2,278
2	3,348,874(-1,506)	685,548(20.4%)	-1,759(2021.12)	1,228	2,090
1	3,350,380(-3,247)	681,885(20.35%)	-1,507(2021.11)	939	2,324
2021.12	3,353,627(-2,684)	679,367(20.26%)	-1,615(2021.10)	1,155	2,188
11	3,356,311(-2,452)	677,214(20.18%)	-121(2021.9)	1,212	1,963
10	3,358,763(-763)	674,420(20.08%)	-1,713(2021.8)	1,217	1,909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021~2022) 재구성

저출생 심화

- 부산광역시 2020년 출생아 수는 15,058명이며, 합계출생률은 0.75명이다. 2010년부터 7대 도시(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중 2번째, 즉 서울 다음으로 출생률이 낮다. 저출생 원인은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주거 부담, 양육 및 교육 부담, 그리고 일과 생활의 불균형이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제4차 부산시 저출산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시정 목표를 ‘합계출산율 제고’에서 ‘개인 삶의 질 개선 및 성 평등한 부산 실현’으로 전환함으로써 개인 삶의 가치와 태도에 입각하여 문화적 방법⁵⁾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5) 여기서 문화적 방법이란 주체화, 즉 당사자가 동의함으로써 스스로 문제해결에 나서도록 만드는 방법,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

- 대표적인 정책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군 확대를 통해 거점육아지원을 추진하는 것이다.

아동 인구 감소

- 부산광역시 아동 인구는 2011년 595,314명에서 2020년 442,776명으로 감소했다. 아동인구 감소는 지역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래부양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 부산광역시는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를 제기하고, 아동권리, 아동건강과 안전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대표적이다. 아동친화적 놀이환경을 확충하고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을 촉진하고자 2030년까지 500개 조성을 목표로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으며, 진로와 적성에 따른 교육 및 문화예술 소양 증진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부산문화예술교육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할 부분이다.

고령화 심화

- [표 15]를 보면, 같은 기간 고령 인구는 28,766명이 증가했다. 고령 인구 급증으로 2050년까지 고령인구 비율이 44%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부산이 7대 도시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라는 점을 시사한다.
- 자세히 살펴보면, 중위 연령은 46.3세에서 60.1세로 향후 30년간(2020-2050) 13.8세가 증가하지만, 학령인구는 46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47.8% 감소하고, 생산연령인구 역시 237만 명에서 121만 명으로 거의 절반으로 감소한다. 반면, 고령 인구는 베이비부머의 진입으로 63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폭증한다. 이에 따라 부양비⁶⁾는 41.4에서 106.9명으로 급증한다. 이는 유소년 부양비 10% 증가, 노년부양비 20.4%가 증가로 나타난다. 30년 이후에는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이러한 위기 속에 부산광역시는 2021년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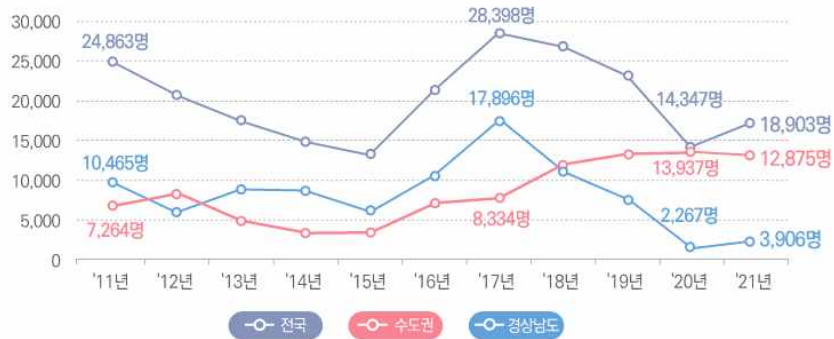
6) 생산연령인구 1백 명이 부양하는 유소년 및 고령인구 비율을 말한다.

성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건강한 노후: 15분 돌봄체계 구축, 안정적인 소득: 50+ (신증년)복합지원센터, 안전한 생활공간: 부산형 해비타트 운동(독거노인 집수리 사업), 즐기는 문화체육여가: 노인복지관/경로당 커뮤니티 활성화 및 문화행사 지원, 자율적인 공동체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문화예술교육은 이러한 정책과 결합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인구 유출 심화

부산의 인구이동 추이(시도간)

2011~2021년 부산인구 순유출(전출-전입) 현황



- 수도권으로 인구유출 현상은 심화되고 있으나 경남으로의 유출은 감소 추세
- 2018년 부터는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경남으로의 유출인구를 역전
- 총인구 유출은 2017년 이후 감소 추세 (10년간 연평균 2만명 순유출)

[그림 2] 부산 인구이동 추이(출처: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2017년 이후 경남으로의 유출은 감소하였지만, 2018년부터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경남 유출인구를 역전했다. 2011~2021까지 10년간 순유출 인구는 연평균 2만 명이다. 2021년 기준 부산광역시 인구 순유출은 20~39세(7,449명, 39%)와 40~59세(5,365명, 29%)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25세~29세(5,680, 30%)가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20~24세, 0~4세 인구는 유입이 많음). 전출 사유는 '직업'이 가장 크며, 수도권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교육'도 수도권 인구 유출의 주요한 요인이다. 경남지역으로의 전출 원인은 주택과 가족, 자연환경의 순으로 나타난다.

- 부산은 대학이 많다는 강점 때문에 전국에서 부산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다(20~24세 인구, 3년째 순유입).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교육'을 중심요소로 대학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정책은 일자리와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식학 연계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② 인구감소 대응 정책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정책

높아져가는 1인가구 비율! 부산시의 1인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년 1인가구 비중(전국, 부산)



- 1인가구 비율 증가 추세('16년 27.7%→'20년 32.4%), 점차 늘어나는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필요
- 부산시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고, 1인가구 특성을 반영한 4대 분야별 생활밀착형 정책 지원

[그림 3] 1인가구 증감 추세(출처: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의 1인 가구 증가 추세는 2016년 27.7%에서 2020년 32.4%로, 전국 통계치보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저소득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통장, 카드 발급), 스마트 돌봄서비스 지원(AI 돌봄, 독거노인지원, 무료급식), 노년층/저소득 1인 가구 일자리 지원, 1인 가구 안심 거주환경 조성, 1인 가구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공급, 범죄예방 환경조성 및 시스템 구축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 1인 가구 대응 정책은 크게 소득(돌봄), 안전, 소비, 주거, 사회적 관계망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관계망 지원은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연동하여 추진할 지점이 있다. 부산광역시는 2023년까지 1인 가구 및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를 4개소(서구, 동구, 사하구, 강서구)로 확대할 방침이며, 1인 가구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1인 가구의 외로움과 우울감 해소를 위한 사회공동체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 현재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추진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맡고 있는데,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다.

대학생 유입 정책

- 지역대학 위기는 지방소멸 위기와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있다. ‘지역 청년인구 유출→지역대학 충원율 하락→지역경제 활력 저하 및 시민 삶의 질 하락→지역인구 수도권 재유출’이라는 연쇄 순환고리를 형성하여 결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지산학 인재도시 조성을 통해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졸업과 동시에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 문화와 예술의 필요성이 경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가치 영역에서도 증가하는바, 예술전공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스타 예술가 양성뿐만 아니라 90% 이상의 문화예술교육가 양성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학 당국과 부산광역시는 예술전공 학과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해 예술전공 청년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

신중년 정책

- 신중년은 청년과 노인 사이의 연령(50+)대를 말한다. 2021년 기준 부산광역시 신중년 인구는 1,104만 명(32.9%)으로 전국 3위, 광역시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2045년에 이르면 60~70세가 전체 인구의 허리에 해당하므로, 지금이 신중년 정책의 최적기라 볼 수 있다.
- 은퇴 준비가 미흡하고 정책 지원대상의 사각지대에 처한 신중년 세대는 일자리와 사회참여, 소통과 활동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부산광역시에서는 신중년의 경험과 기술 자원화 지원, 소통/교육/일자리/건강과 여가 지원, 활력있는 인생의 비전 창조 및 사회공헌 활동 지원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 도모하고자 한다.
- 세부적인 과제와 사업은 지원기반 구축(50+ 복합지원센터 구축, 빛나는 인생학교, 건강관련 강좌 운영 등), 노후 준비 교육지원(신중년 놀이터, 적합 직종 양성교육 등), 취업 훈련 일자리 지원(취/창업동아리 지원, 전직 지원, 인턴십 등)이 있다.
- 신중년의 경험과 기술, 지속 활동의 요구는 도시 활력에 중요한 자원이며, 문화예술교육과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분야다. 특히 부산광역시가 시행하고 있는 건강 및 여가, 문화 활동 지원 분야는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정책

- 부산광역시 외국인 인구수는 2017년 말 기준 49,658명으로, 2016년 대비 1,295명(2.7%) 증가했다.⁷⁾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는 2016년 기준 318,948명이며 다문화 가족 자녀 수는 8,852명으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가족은 저출산 시대, 도시 창의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인구 계층이다. 부산광역시는 도시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이들의 정체성과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힘쓸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이들의 자존

7) 「제4기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 부산복지개발원, 2018, 33-34쪽.

감과 문화적 표현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도시 구성원(집단)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도시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③ 시사점

- ‘부산광역시 장래인구 추계 및 인구정책 방향’에 따르면 부산 인구는 2034년에 300만 명 선이 붕괴되고, 2050년까지 29%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336만 명에서 2050년에 251만 명). 이는 전국 8% 감소 전망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⁸⁾ 또한 부산은 초저출생의 장기화로 유소년 인구 및 생산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급격한 고령화로 2050년까지 고령인구 비율이 44%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은 7대 도시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다. 게다가 부산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로 총인구의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과제는 출산율 저하 등 인구감소 심화에 대한 장기적 대응, 청년유출을 막기 위한 일자리 중심 정책 대응, 중장년층 생산성 유지 및 향상을 통한 초고령사회 대응 등 인구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문화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르면, 부산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문화역량 강화 기여’에 있는바, 문화예술교육은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시민을 위로하고 자존감 회복에 기여하며,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활력과 문화 창달을 위한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산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은 부산광역시 인구 동향과 정책과제를 반영하여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에 맞는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방향을 담지해야 한다.
- 세부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아동 감소]** 부산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기초중심 문화예술교

8) 부산광역시 인구정책브리핑(2022.7)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에서 인용.
<https://www.busan.go.kr/briefing/1533694?curPage=&srchBeginDt=2021-09-24&srchEndDt=2022-09-24&srchKey=&srchText=>

육을 촉진하기 위해 생활권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사회 및 행정의 인식 개선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부산문화예술교육은 시의 핵심사업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저출생]**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2021)은 주로 공연장과 미술관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군단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기초단위 통합거점화 전략).
- **[고령화]**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종합계획’을 보면, 평생교육 인프라 확대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노인을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주체로 인식하고 ‘경로당 커뮤니티 활성화’나 ‘신중년 세대 역량 재구성’과 같은 정책과 연계하여 노인들에게 독특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부산문화예술교육은 평생교육과 사회복지, 마을공동체 등과 협력하여 생활권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 **[청년인구 유출]** 2021년 프로젝트형 문화예술교육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과 이웃, 마을의 역사를 접하면서 정주의지를 형성했다는 사례 보고가 있다. 오늘날 가족 형태나 개인의 정주의지는 과거처럼 견고하지 않으며, 직장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과 친밀감이 있는 곳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는 것이 청년세대의 한 특징이다. 따라서 부산문화예술교육은 교육(유입)-졸업-정주를 위한 지산학연계사업과 함께 ‘자기실현’, ‘공정’, ‘정의’와 같은 가치에 익숙한 MZ세대 청년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1인 가구 증가]**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고립과 우울감 해소, 커뮤니티 활동 욕구에 부응하는 1인 가구 커뮤니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신중년]** 신중년의 경험과 기술, 지속 활동의 요구는 도시 활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부산광역시의 ‘건강 및 여가’, ‘문화 활동 지원’ 분야는 문화예술교육과 연계 가능성이 높다.
-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외국인 주민은 부산 경제와 문화다양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인구다. 복지 분야 사회보장계획은 16개 구·군 단위의 자체 계획을 포함하여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는 편이다. 부산문화예술교육은 이러한 사회보장계획

을 생활권 중심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과 체계 구축의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

(2) 자립형 부산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주요 정책 환경

지역분권과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지방이양

- 제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수립부터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다. 2023년 지방이양을 앞두고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에 대한 고민이 깊다. 지방이양의 핵심은 지역생태계 강화, 광역센터 기능 강화, 기초단위 추진체계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9년 중앙정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는 광역센터 운영비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비, 꿈다락 문화학교 사업비를 통합하고, 광역센터 기획 및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해마다 꾸준히 확대했다(10%→14%→21%→25%). 그리고 중앙정부는 광역센터의 안정적·독립적 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법 개정(기능 명시)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앙정부는 2020부터 더 촘촘한 생활권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기초단위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이하 기초센터)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방(광역 및 기초)정부에 교부하는 광역센터 통합예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만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역의 인식과 준비가 여전히 미진하다는 데 있다. 여기에 중앙정부는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의 거점 활성화 역시 미진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기초센터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공감과 인식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생활권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기초센터 시범사업은 2020년 4개 지역, 2021년 8개 지역이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부산에는 기초센터가 없는 상황이다.
-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광역센터의 독립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센터 설립 지원 및 기초단위 관계자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는 제1차 문화예술교

육 종합계획 이행평가에서 충분히 지적된 사항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분권화에 부합하는 부산문화예술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기초센터의 구조와 체계에 대한 논의를 폭넓게 전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환경을 제도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부산광역시 핵심정책, ‘15분 도시 부산’

- ‘15분 도시 부산’은 민선 8기 시정의 핵심정책이다. ‘15분 도시’는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걸어서 혹은 자전거로 집에서 사무실, 병원, 학교, 공원, 시장 등을 다닐 수 있는, 즉 생활권 내에서 일과 생활이 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생활의 편의성을 도모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넓게 보면 과도한 에너지 사용이 기후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의 산물이기도 하다.
- ‘15분 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15분 생활권 5곳 조성,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500곳)은 부산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역화의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는 기초단위 생활권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교육이다. 이러한 점에서 ‘15분 도시 부산’은 그동안 문화예술교육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생활권 문화예술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제2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2020~2024)

- 지역분권화는 문화정책에서도 자체 완결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 관련 법이나 규정은 큰 틀에서 보편성과 독자성을 함께 지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2차 부산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할 때 부산광역시 제2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2020~2024)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표 16] 부산광역시 제2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2020~2024)과 문화예술교육

전략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시민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문화예술교육도시’ (10대 전략 중 8번째)	시민 문화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체계 개선’	학교문화예술교육 체계화 및 연계 강화
		사회문화예술교육 확대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및 평가시스템 구축
	시민 문화학습 강화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강화
		문화예술교육단체 지원 확대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강화

- 두루 알다시피 「지역문화진흥법」(2014) 제정될 당시 「문화예술교육진흥법」(2005)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문화예술교육은 지역문화 진흥계획과 상관없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지역문화보다 더 뿌리내리기 어려웠다. 이러한 사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역화와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체계 구축 과정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는 부산광역시 제2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2020~2024)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계획을 명시하고 있고 정책입안자와 행정 관계자들의 관심과 규제력이 높기 때문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기본계획)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조례를 통해 5년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2022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요약본)

부산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행복을 더하는 학교예술교육

일상 속에서 즐기는 예술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협력적 인성을 함양하는 부산 학교예술교육

비전

예술로 꿈꾸며 성장하는 행복한 학생

목표

모든 학생들의 예술체험 생활화로
행복한 미래의 삶을 이끄는 학교예술교육 강화

추진 과제	교육과정 기반 학교예술교육 강화 예술싹 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과 실기 중심의 질 높은 예술수업 지원 • 학교예술교육 교원역량 강화 • 학생 맞춤형 예술동아리 운영
	학생 예술교육 경험 다양화 예술꽃 피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예술체험 활성화 • 감성을 키우는 예술표현 및 감상 기회 확대 • 꿈과 끼를 찾는 문·예·체 체험공간 운영
	예술교육 지역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예술꿈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자원의 유기적 연계 및 활용 • 지속가능한 학교예술교육 지원 협의체 구축 •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 향유 예술체험 활성화

2022년 달라지는(신규·확대) 학교예술교육

- ✔ **신규** (부산예술나드리 앱) 부산 문화예술기반 정보자원을 안내하는 앱 개발·보급
- ✔ **신규**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 지속가능 학교예술교육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 ✔ **확대** (행복재움예술보따리)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체험활동비(초·중·고·특수 1인 30,000원)
- ✔ **확대**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플러스) 사립유치원까지 확대(유초·중·고·특수 550회→700회)
- ✔ **확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현장 수요 반영 예술강사지원사업 확대(85,000시수→102,000시수)
- ✔ **확대** (영화교육중점학교) 지역 유관기관 연계 다양한 영화교육 기회 확대(초1교→초3교)

[그림 4] 2022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요약본)

- [그림 3]은 조례에 따라 수립된 부산광역시교육청 ‘2022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역사가 20년에 이르고 있는데도 여전히 지역과 통합된 움직임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른 영역과 달리 교육의 체계 변화가 상당히 더딘 측면과도 관련이 있다. 용어 또한 “학교예술교육”, “학생 예술교육”,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의 용례에서 보듯이 일관성이 부족하다.
- 그런데도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확대,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 신설, 지역사회와 연계한 예술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등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교육을 위한 부산형 메이커교육 운영, 기술과 문화예술을 융합하는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예술교육과 학교가 밀도 높게 협력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점차 마을에서 다양한 문화적·예술적 경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이 연계성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의무사항임). 이를 통해 학교-마을-예술강사가 공진화하는 생활권 중심의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2022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 부산광역시는 「청년기본법」 제9조, 「청년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부산지역 청년의 활동과 자립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부산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 문화 부문 지원계획을 강화하고 있다.
- 웹툰(글로벌 웹툰센터/부산 웹툰캠퍼스 운영), 1인 미디어 산업 육성, 원도심 빈집 청년놀이터, 청년작당소 운영, 청년 거리예술 활성화, 아트페어, 청년문화 전문인력 양성, 청년문화축제, 청년문화거리 조성, 지역대학 비교과과정(예체능) 활성화, 청년연출가 작품 제작 지원,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계획은 부산지역 청년문화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부산문화재단과 부산청년센터(관계 공무원)의 협력으로부터 시작된다.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정책: 평생교육의 지역화 대응

- 2022년은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 종료되고 제5차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다. 전문가들의 논의에 따르면 제5차 계획에서 중요한 이슈는 평생교육기본권과 평생교육이용권, 디지털 평생교육, 지역평생교육 등이다.
- 평생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다(「평생교육법」 제1조). 평생교육이용권은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바우처 서비스처럼 소외계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지역평생교육은 평생교육을 지역 활동과 연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평생교육이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학습이라면, 앞으로의 평생교육은 이웃과 마을로 관계가 확장된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으로 향하는 문화예술교육에 협력과 갈등이라는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까닭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의 성과로 정부 정책 중 ‘최초의 수요자 중심 정책’이라는 점과 ‘전국적인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을 꼽았다(아르떼 전문가라운드테이블, 2022). 하지만 아무리 문화예술교육 정책 전달체계가 전국적 범위를 갖추었다 해도 지원센터가 8개 도시에 1개만 설치되었을 정도로 평생교육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은 부서 간 통합전략을 통해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의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정책

- 정부는 4년마다 사회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2년은 제4차 종합계획이 끝나는 해다. 2021년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에서는 저소득, 장애, 고령자 등 복지가 필요한 다양한 시민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화예술교육과 복지건강국의 연계로 문화예술교육의 활동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는 장애인 자립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자립생활센터 18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립생활센터는 자립과 권익 옹호 등의 상담뿐만 아니라 문화와 여가 활동 지원을 포함한다. 따라서 자립생활센터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 1970년대 영국에서는 커뮤니티 아티스트(communitv artist)와 지역사회개발 노동자(communitv development worker)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과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자치 역량을 강화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는 문화예술교육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2. 지역사회와 현장의 요구

1) 제2차 정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

[표 17] 제2차 정부종합계획(2023~2027)

비전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목표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2021년 81.4점 → 2027년 90점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2021년 11.4% → 2027년 25%	문체부 재정 대비 문화예술교육 예산 2021년 1.7% → 2027년 2.5%

추진 전략	누구나: 일상에서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① 국민 체감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②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
	더 가까이: 지역에서 즐기는 문화예술교육	③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④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율성 강화
	더 깊게: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⑤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환경조성 ⑥ 문화예술교육 인력 관리 체계화 ⑦ 문화예술교육 정책 기반 입체화

* 2022년 12월 기준안

2) 현장 요구

(1) 키워드를 통해 본 문화예술교육 활동가의 주요 관심사

① 조사 목적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부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종합계획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키워드를 조사하였다.

② 조사 결과

- 질문 1: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에 대해 70% 이상이 알고 있었다.
- 질문 2: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행복’→‘창의적 인재 개발’→‘문화예술 저변 확대’→‘자아실현/자존감’→‘사회적 가치 실현’→‘예술가치 확산’→‘전통문화 보존’ 등으로 답변했다.
- 질문 3: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키워드를 제시한 뒤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순위별로 제시하면, ‘공공성’, ‘거버넌스’, ‘사회적 가치’, ‘생애주기별 교육’, ‘사회적 가치/창의성’, ‘생활문화/공감’, ‘문화정책’이었다.

빈도수별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표 18]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부산지역 문화예술교육 현장활동가 설문조사: 빈도수별 키워드 응답 결과

빈도수(개)	키워드
11	사회적 가치, 교육적 가치
10	문화다양성, 문화 향유, 전용공간(공간), 지속가능발전(SDGs), 창의성
9	계획의 실효성, 생애주기별 교육
8	생활예술/생활문화, 공공성
7	기회균등, 문화매개인력, 문화정책, 공감
6	예술의 자율성
5	거버넌스, 문화민주주의, 문화역량, 문화 환경의 변화, 사회문화예술교육, 시민문화권, 지역/지역문화, 친밀감/소통
4	디지털/디지털 전환, 마을/공동체, 예술강사, 지역분권/문화분권, 패러다임 전환, 평생교육, 회복력(Resilience), ESG
3	디지털 리터러시, 문화산업/문화관광, 예산, 예술가치 전환, 융복합/통합, 제도 및 정책 개선/지역생태계, 커뮤니티, 콘텐츠, 학교문화예술교육, 기초센터/광역센터
2	뉴미디어/AI/메타버스, 문화예술교육사,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소수자, 고령화, 세계시민교육, 정부와의 연계성, 치유/치료, 커뮤니티 아트, 기초재단/광역재단
1	문화의 경제화, 생태/환경, 예술노동자, 자기주도성, 지방이양
0	문화적 도시재생, 상향식 정책 수립, 성과 관리, 재난/포스트코로나, 지역 아카이빙, 지방소멸
기타	문화예술교육 방향성 설정, 접근성

- 질문 4: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제안사항
 - 현장의 의견 반영, 현장 중심 지원체계 반영
 - 실효성 있는 계획
 - 정보 공유와 홍보가 원활한 계획
 - 융복합 프로그램 강조
 - 공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 학교와 마을, 예술강사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
 - 창의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하는 계획
 -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계획
 - 지방이양에 따른 자립적 계획

③ 결과 분석

-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행복-창의적 인재 개발이 가장 많았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역량 강화’라는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일치한다. 문화예술 저변확대와 자아실현, 자존감을 삶의 질에 포함할 수 있다면, 응답자들이 중시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세 번째 역할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 이것은 부산 지역 문화예술교육 주체들의 관심이 문화예술교육의 기본 목적과 함께 점차 사회적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부산지역 문화예술교육 주체들이 선택한 첫 번째 키워드는 ‘공공성’이다.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에 기초하여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문화예술교육의 기능(역할) 확대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물적 토대에 의해 가능하다. 그런 만큼 예술강사와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결석(no-show) 방지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유료로 전환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공공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 두 번째 키워드는 ‘거버넌스 구축’이다. 거버넌스란 민관협치, 즉 과거 정책 결정에서 행정의 일방성을 벗어나 정부-기업-비정부기구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혹은 행위자가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지역 문화예술교육 주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현장 중심의 계획과 운영을 요청했다. 지역분권화는 지역의 자율적인 권한과 더불어 자립을 위한 지역 역량의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 가능한 자원을 모두 조직하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 시민사회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힘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참여하는 데 있다. 이러한 참여가 곧 의사결정을 함께하는 거버넌스다. 거버넌스는 지역민의 가치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지역 문화예술교육은 과정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원리에 맞게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현장과 함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세 번째 키워드는 ‘사회적 가치 구현’이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제2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의 구호는 ‘예술은 사회성을, 사회는 창의성을’이었다.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호다. 즉 예술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예술교육을 통해 사회 전체의 창의성, 즉 문화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단, ‘예술의 사회성’은 ‘예술의 자율성’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논쟁적인 주제다. 시민 참여가 경제적 생산과 기후위기, 빈곤과 양극화와 같은 불평등 해결의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사회적 참여예술이나 공동체예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참여예술이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은폐하고 체험경제 시대 새로운 시장(경험상품) 생산에 부역하고 있다는 비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Clair Bishop, 2004).⁹⁾
- 네 번째 키워드는 ‘생애주기별 교육’이다. 문화예술교육의 초기 정책 중심에는 소

9) Claire Bishop, 'Antagonism and Relational Aesthetics', October, no.110, fall 2004, 53 쪽. 이에 대한 비판은 공동체 예술가인 게리 모리아티도 같은 입장이다. 그녀는 참여예술이 ‘권력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가 아니면 현상 유지를 확인하고 뒷받침하는가’라고 질문한다. Gerry Moriarty, 2014. ‘Where Have We Come From?’ Community Arts to Contemporary Practice. <https://communityartsunwrapped.com/2014/03/24/where-have-we-come-from-community-arts-to-contemporary-practice/> (2022.9.25.검색)

외계층이 있었다. 2010년 세계문화예술교육 대회를 기점으로 전 국민 전 생애 문화예술교육으로 정책 대상이 확대되기 시작되었고, 시민문화예술교육이 등장하였으며, 대상도 점차 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년, 신중년, 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로 세분화되었다. 또한 부처 간 협력사업을 통해 탈학교, 직장인, 지역주민, 기업, 군인, 경찰, 교정시설, 치료감호소, 상이군경, 미혼모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사회이슈와 마주하는 ‘N개의 문화예술교육’과 같이 기후위기, 사회갈등, 인권과 다양성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 실현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특히 문화다양성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다문화 가정을 넘어 소수자(LGBTQ)와 같은 취향과 정체성 옹호를 위한 문화예술교육도 요청되고 있다. 제2차 부산종합계획은 연령과 생애주기별 대상이라는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신중년과 같은 새로운 대상을 발굴하는 동시에 부산 특유의 힘, 즉 인정과 저항성, 마이너리티의 힘 등과 같은 도시의 잠재성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다섯 번째 키워드는 ‘사회적 가치/창의성’이며, 여섯 번째 키워드는 ‘생활문화/ 공감’이다. 여기서 사회적 가치와 생활문화 이외에 각각 창의성과 공감 키워드가 나온 점을 주목해보자. 1~4순위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도구적 역할을 강조했다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적·내재적 가치는 후순위였다. 문화예술교육 활동가들이 개인적·내재적인 요구보다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여섯 번째 키워드는 생활문화다. 생활문화는 지금까지 개인의 취미활동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문화기본법」(2013), 「지역문화진흥법」(2014)이 차례로 제정되면서 생활문화는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지역문화의 주체로 재평가되고 있다. 몇몇 기초문화재단에서는 생활문화를 단지 동호회 활동을 넘어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 활동으로 관리한다. 뿐만 아니라 여타 정책영역인 도시재생, 사회복지, 평생학습 등의 분야에서도 생활문화의 활용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혹은 평생학습에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경계에 굳이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를 위해 사업 중복과 문화행정의 유연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은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과 경계를 설정하고, 현장에서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일곱 번째 키워드는 ‘문화정책’이다. 오늘날 문화정책의 핵심은 지역분권과 시민 문화 참여 활동에 있다. 이는 생활권 내에서 시민의 문화 참여를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를 창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민을 책임 주체로 내세우기 위함이다. 제1차 정부종합계획(2018~2022)에서 이미 지역화와 수요자 중심성을 제시하고 추진해왔다. 하지만 문화예술교육 행정과 지역사회 인식 부족으로 지역화에는 온전히 도달하지 못했다. 따라서 제2차 정부종합계획(2023~2027)에서는 지역사회 주민 생활권 가까이에서 뿌리내리기 위한 정책 전환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정책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 둘째 기초단위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성,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생활권 유사정책과의 연계 통합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 특히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설립 및 문화기반시설과의 연계 협력은 세 가지 방향성의 공통분모가 된다.

※ 세 질문의 두 번째 빈도수별 키워드 분석

- 앞에서 제시한 순위별 키워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가치, 교육적 가치가 가장 많은 응답(11개)을 받았다. 이는 문화예술교육 활동가의 가치 지향이 점차 예술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서 교육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6개~11개 중상위 응답을 받은 키워드들은 대개 사회적 가치 구현과 관련된 키워드다. 코로나와 AI, 디지털 전환, 기술융복합 등의 키워드는 예상외로 하위권을 차지했다. 부산지역 문화예술교육 활동가들이 대면 활동에 더 익숙하며, 문화예술교육을 기술로 쉽게 대체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④ 시사점

- 부산지역 문화예술교육 활동가는 제2차 부산종합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키워드로

공공성, 거버넌스, 사회적 가치, 생애주기별 교육을 들고 있으며, 개인 역량으로서 창의성과 공감 능력 제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로 생각하고 있었다.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 부산지역 문화예술교육 활동가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 실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과 기술 대응, 코로나 대응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2) 지역사회의 의제와 현장의 요구

① 범사회적 의제

이머징 이슈

-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은 2022년 미래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이슈 15가지를 제시했다. 그중 가능성과 파급력이 높은 이슈 10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⁰⁾

- ① (미/중의 대립이 격화) 국제적 연대 호소 및 강화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
- ② (환경재난의 빈발과 국가 간 갈등확대) 이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압력 증가할 것이며, 이 재난은 노동/복지/주거와 연동되어 있으므로 재난 책임을 각각 다른 나라에 전가하면서 국가 갈등 심화될 것임.
- ③ (에너지 전환 급진전) 수소 열차 상용화, 경유 퇴출 및 재생에너지 정책이 급부상할 것임.
- ④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간의 등장) 재난의 일상화에 따른 도시재생 법규(안전이나 녹지 규제 등)가 바뀔 것임
- ⑤ (가상현실의 급진전) 인스타그램, Tiktok 등 모든 인간 활동이 데이터화될 것이며, 데이터의 소유권 문제가 발생함.
- ⑥ (인공지능의 오용/알고리즘의 편향성) 편향된 데이터만 흡수함으로써

10) 박성원, 「2022년 주목할 15개 이머징 이슈」, 『국회미래연구원 Futures Brief』 제4호.

써 사고의 편향성뿐만 아니라 편파적인 사회담론이 형성될 수 있어 차별과 같은 사회적 문제의 배경이 될 수 있음.

- ⑦ (탈사회화) 1인 가구 증가, 전일제 노동 감소, 플랫폼 노동 증가 등 사회적 관계 약화되면서 돌봄의 양극화 우려됨.
- ⑧ (사회적 돌봄 노동 증가) 노인 인구의 증가, 비대면 유아 돌봄 증가, 사회적 관계 약화에 따라 국가(공공)의 역할 부상하게 되며, 외로움과 고립감 등과 같은 국민 정신건강(마음건강)에 대응하는 문제가 커짐.
- ⑨ (새로운 임금체계에 대한 사회적 대화) 평균수명 증가하고 다양한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는 동시에 노동 인구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의 사회 환경은 산업시대의 노동시간 대비 임금체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새로운 임금체계 논의가 시급해짐.
- ⑩ (모자이크 가족의 확산) 전통적인 가족 개념 해체, 새로운 가족 형태 대두함에 따라 복지와 교육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함.

[표 19] 2022년에 주목할 10대 이머징 이슈

가능성과 파급력이 모두 높은 이슈	
미중 대립의 새로운 국면	인공지능의 오용, 알고리즘의 편향성
환경재난의 빈발, 국가 간 갈등 확대	탈사회화
에너지 전환의 급진전	사회적 돌봄 노동의 증가
기후위기 대응, 새로운 공간의 등장	새로운 임금체계 합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가상현실의 급진전	모자이크 가족의 확산

출처: 박성원, 「2022년에 주목할 15개 이머징 이슈」, 2022에서 재구성

부산광역시 정책 이슈

- 부산광역시 발전과 관련한 외부 환경 이슈는 디지털화, 감염병 위험, 기후위기를

기반으로 한 복합적 대전환의 시대 인식이었다. 부산의 잠재력과 저력을 지정학적(Geopolitics)·지경학적(Geo-economics) 이점,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전초기지, 글로벌 물류허브, 동남권 산업벨트/국제관광도시, 대기업의 발상지/한국전쟁 극복의 토대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는 도시의 발전 방향을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도시로의 도약에 두었다.

- 부산광역시는 세계 금융 위기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부산권 주민의 통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계획, 광역적 도시계획(부울경 메가시티), 창조적 종합계획, 생활밀착형 전략계획 등 4대 전략을 수립하였다(「2030년 부산도시 기본계획」, 2022.3.29). 키워드는 저성장, 성장잠재력, 수도권 극복, 광역경제권, 시민참여, 생활밀착형이다.
- 세계 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사회 양극화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라는 우울한 전망 속에서 부산은 경제혁신(남부권 경제성장축 담당), 행정혁신(규제혁신과 행정 속도개선), 미래혁신(정부 공조, 미래비전사업 박차), 공동체 혁신(복지/돌봄 강화, 행복 생활권-15분 도시 조성)을 통해 글로벌 허브도시와 시민행복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하였다(부산광역시 민선 8기 시정방향 및 주요 업무계획, 2022.7.21). 키워드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사회양극화, 수도권 극복, 광역경제권, 생활권 조성이다.
- 부산광역시의 중요한 의제는 광역경제권, 수도권 극복, 디지털, 기후위기, 시민복지와 시민참여, 생활권 정책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민선 8기 부산시정의 방향과 밀접한 문화예술교육 영역은 디지털, 기후위기, 15분 도시-생활권 도시 조성 계획이라 할 수 있다.

② 부산문화예술교육의 의제

주요 기관의 의제

- 예술교육은 특정한 효과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로 접근해야 한다. 미국

에서 예술에 관한 권리는 시민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예술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권리는 국가의 의무이며, 예술교육은 전인적인 교육에 필수이자 창조적 잠재력과 경제에 대한 권리이기도 하다.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보고서 「문화예술교육 이슈 분석 리포트: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회복」(임학순 외, 2021)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통합, 자연과의 공생, 문화다양성, 공감, 공동체, 디지털 윤리 등의 이슈를 제기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성찰’과 ‘회복’ 과제를 제기한다. 인간, 경제, 물질 중심의 패러다임이 낳은 부정적 효과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과 균형을 찾기 위한 문화적 접근을 제기하였다. 문화와 예술을 통해 인간의 가치관과 생활 태도를 회복하고,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문화예술교육 종사자의 이슈

-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개원 10주년을 맞아 부산문화예술교육의 지난 10년을 평가하고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대담집을 발간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조직, 문화예술교육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전환, 10년 평가와 전망 등이 주요한 토론 주제였다. 각 섹션에서 도출한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학교문화예술교육]** 학교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변화와 흐름에서 주요한 이슈는 과정중심의 교육, 디지털과 비대면 강화, 예술강사 역량 강화였다. 학교예술강사 제도화 관련하여 예술강사노조, 예술강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주요한 이슈였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실험에서는 프로그램의 공동저자(co-creating)+공동운영(co-operating)성, 교강사 협력, 통합교육프로그램, 지역사회-학교-예술강사 거버넌스를 강조하였다.
-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에서는 예술을 통해 지역과 이웃을 알아가는 매력, 프로그램 연속지원과 우수 프로그램 마케팅 지원, 지역과 마을(주민) 변화 성과, 공정한 심사, 부산다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

교에서는 아이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 공유, 토요문화학교와 마을교사 협력, 문화예술교육과 마을공동체 연결, 단체 자율권 확대, 디지털(AI, 메타버스) 고민이 주된 이슈로 제시되었다. 비전공자이면서 10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종사자에 대한 예술강사 자격 인정 여부, 학교문화예술교육과 토요문화학교 차이 명료화 등의 문제가 제시되었다. 신규문화예술교육단체 발굴과 인큐베이팅과 관련해서는 활발한 교류, 전문가 매칭을 위한 정보, 컨설턴트 연결 자율성, 재단과 수혜기관 소통 강화, 사회문화예술교육 강사에 대한 교육 분야 역량 강화 지원, 서류 간소화, 강사 처우 개선 등이 이슈였다.

-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전환]** 문화예술교육 환경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소통과 디지털, 창의적 결과물보다 생산 과정에서의 경험 중시, 융합과정에서 느낌 설명해보기, 유아문화예술교육에 관심, 학교 인재교육 방향과 통합, 디지털 기술과 예술융합에서 인간통찰력의 필요, 과정 중심 문화예술교육 등 프로그램 전환과 혁신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지역과 소통하는 문화예술교육 이슈로 지역 활동가 양성, 지역공동체 결속, 지역문제와 사회문제 해결, 커뮤니티 아트 이해, 외로움과 고립감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역강사 전문성 인증, 기획자-지역 매개자-예술가 거버넌스, 비어있는 기획 즉 프로젝트형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동네 문화예술교육센터 설치 등이 제시되었다.
-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이 섹션의 이슈는 지속성과 자발성 확보를 위해 단체 자존감 제고, 낮은 강사비와 불안정한 활동 환경 개선, 이해당사자 거버넌스 확립, 학교문화예술교육 코디네이터 필요, 대상 세분화 필요, 주제 확장(세계시민, 난민 등)으로 나타났다.
- **[지원조직 역할과 과제]**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자율성 보장, 상향식 구조 마련, 기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치, 광역재단과 기초재단의 협력, 기초재단의 역할 강화, 교강사 협력 지원, 기초생태계 조성을 위한 광역재단의 역할, 마을공동체와 문화예술교육의 연계, 여타 시민 문화예술 활동과의 변별력 확보, 예술강사노조 인정, 예술강사 사전 준비시간 인정,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위한 교육,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교류의 장 필요라는 이슈가 제시되었다.
-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양질의 교육을 위해 예술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022년 들어 예술강사 인건비를 43,000에서 60,000원으로 인상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강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율성 확대, 노동조합 인정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사회문화예술교육 분야 예술강사에 경력이 풍부한 지역전문가(활동가)를 포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마을 자체가 학습장이 되는 이즈음의 문화예술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주목할만하다.

③ 시사점

- **[문화예술교육의 외부적 이슈]** 세계적인 이슈는 기후위기, 에너지 위기, 탈사회화, 디지털 전환, 양극화 심화, 노동형태 전환과 그에 따른 보상 체계 논의, 새로운 가족 형태의 출현이다. 도시정책 이슈는 이를 수용하면서 도시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부산의 이슈는 디지털, 감염병, 기후위기라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수도권 극복을 위한 광역경제권 조성, 사회적 위기 대응을 위한 복지 및 문화적 생산을 위한 생활권 도시 조성이다. 이는 기초단위 생활권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에서 긍정적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문화예술교육의 내부적 이슈]** 문화예술교육의 일반적 과제를 종합해보면, 디지털 환경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고독과 외로움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방이양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 기초단위 중심 문화예술교육, 생활권 문화예술교육의 확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 세계시민성을 강화하는 문화예술교육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오늘날 문화예술교육은 국제 수준의 권고와 환경변화에 따라 점차 예술 가치 확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방향으로 범주 확장이 요청되고 있다. 현장활동가의 인식 속에서 자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타 부문 정책(평생교육, 사회복지, 마을교사, 도시재생, 문화도시, 마을공동체, 생태환경 등)과 연계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이육상은 문화예술교육이 경제와 복지, 심지어 심리건강에 이르기까지 숱한 문제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커뮤니티와 예술이 함께 교육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커뮤니티 아트 혹은 참여예술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3) 전문가그룹 집담회 결과 분석

[표 20] 전문가그룹 집담회 진행

일시	장소	의제	패널	진행
8월 17일(수) 14:00 -16:30	부산문화 재단 3층 배움방2	개념과 범위, 가치(철학)와 방향성, 이론과 실제	이지훈(필로아트랩 대표)	이순욱
			서희정(동의대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 교수)	
			이옥상(금곡고등학교 교사, 오픈스페이스배 팀장)	
			류기정(부산예술강사지원센터 센터장)	
			조영애(드림교육센터 대표)	
8월 18일(목) 13:30 -16:00	부산문화 재단 3층 배움방1	지역화 전략	김부련(맨발동무도서관 관장)	이강민
			정민룡(광주 북구청소년문화의집)	
			김수진(울산예술강사지원센터 센터장)	
			조성백(오픈아츠스페이스 머지 대표)	
8월 19일(금) 10:00 -12:30	부산문화 재단 3층 배움방1	현장의 요구와 도전	김경준(문화배움공동체 들 대표)	이순욱
			옥순주(함께 사는 문화마을공동체 대표)	
			모상미(모이다아트협동조합 대표)	
			이훈무(금정청소년수련관 팀장)	
			문지영(예술과교육 도르래 대표)	
8월 22일(월) 15:30 -18:00	부산문화 재단 3층 배움방2	정책 거버넌스 (중앙-광역- 기초)	최윤진(부산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최윤진
			이정형(금정문화재단 지역문화팀장)	
			조경은(부산진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상학(대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허윤정(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협력팀장)	
8월 24일(수) 13:00 -15:30	부산문화 재단 3층 배움방2	전환과 미래 (기술, 융복합, 다양성 등)	이승욱(플랜비 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	이순욱
			고윤정(영도문화도시센터장)	
			김원명(경성대 음악학부 교수)	
			김태희(영산대 교수)	

(1) 그룹별 논의 결과

① 제1그룹: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방향성

- 문화예술의 새로운 가치
- 문화예술정책의 환경 변화
-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 문화예술교육의 수요자: 다양성과 세대
-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역할 재정의, 시너지 창출 방안
- 교육의 재정의와 문화예술교육의 확장적 정의
- 문화예술교육의 인식 확산 방안
- 문화예술교육의 내용과 방법
- 문화예술교육의 수요자 특성

제1그룹 논의 주제는 문화예술교육 가치와 방향성이다.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여 제2차 부산종합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문화예술교육 개념과 범주 확장에 관한 논의가 깊었다. 오래 전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의 분과 학문이나 장르와 예능 중심으로 사유했지만, 오늘날 문화예술교육은 삶에 대한 태도, 공감과 소통, 치유와 회복, 사회통합의 가치 등을 함의하는 확장적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다원예술, 융복합 예술 등 예술의 개념과 영역이 전통적 경계를 허물고 한껏 확장된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나 예술, 교육 차원의 가치에서 벗어나 독특한 의미와 범주를 지닌 '새로운 장(field)'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문화예술교육의 자장 안에서 감각 체험의 질, 즉 퀄리아(qualia) 개념이 환기되었다. 개인의 체험의 질을 제고하고 경험치를 최대한 확장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공감과 소통, 치유, 행복 추구의 홈베이스로서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대치는 자못 높은 편이었다. 수행단체들이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재편

과 범주 확장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며 정책 방향 설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청취하였다.

영역과 범주 문제에서 평생교육과의 유사성과 차이성에 관해 논의하였다.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 교육학적 차원의 한계가 여전한 가운데 교육학적 구조화 문제를 문화 예술교육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대한 방법적 고민이 제기되었다. 또한 교육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생활문화, 도시재생, 마을활동 영역에서도 중복과 차이의 문제는 여전하다. 문화예술교육의 범주가 가파르게 확장되어 가는 현실에서 5개년 장기 종합계획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근본적으로 되짚어보기도 했다.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프로그램의 영역 확대 문제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사회적 소수자, 커뮤니티, 생태 등 삶의 근본적 가치나 의제가 문화예술교육과 결합하는 구도이며, 게임과 웹툰까지 문화예술교육의 자장 안으로 파고들고 있다. 글쓰기를 포함한 인문학 영역이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현실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가령, 일자리나 관광자원화와 같은 경제적 효과, 입시·진학률 등 사회적 성과까지 나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일은 문화예술교육의 본질과는 다른 차원이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예술강사의 처우 문제 및 제도권 내 교육 불균형 문제 등과 관련해 전수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의견 개진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층위의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과는 차이가 나는 포지션에서 정책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두 영역의 문화예술교육은 동일한 법령의 우산 아래 있으면서도 상당히 다른 결로 발전해 온 셈이다. 따라서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정책 안에 동일한 층위로 반영하기 어려우며, 양자 간의 결합이나 협력 문제는 포괄적 수준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절감할 수 있었다.

② 제2그룹: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전략

-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의 성과와 방향
- 지방이양의 기회와 도전, 문제점과 과제
-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전략(제도, 정책, 예산, 공간, 아카이빙과 플랫폼 구축, 네트워크 형성과 지원, 인력 양성과 교육 등)
- 부산형 문화예술교육의 아젠다
- 문화도시, 생활문화와의 관계 설정(범위, 구분기준)

제2그룹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큰 범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더불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하였듯이, ‘지역’ 또는 ‘지역화’는 문화예술교육에서 중요한 의제다. 이 문제는 생활문화, 문화도시의 영역에서도 유사하게 다루고 있다. 북구 맨발동무도서관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2009년 생활문화공동체 시범사업으로 지역 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주민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여기에 공연을 비롯한 문화예술과 다양한 인문학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¹¹⁾ 이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는 기초단위, 낮은 단위, 작은 단위에서 전개한다는 점이다. 지역특성화라는 사업명이 담고 있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 즉 지역성 강화, 지역 정체성 발견과 같은 가치와 층위가 다르다. 이는 지역분권이나 지방이양이라는 정책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주목할 지점이기도 하다. 지역, 지역형이라는 개념은 완성형이 아니라 발견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픈아츠스페이스 머지의 사례는 지역의 발견이라는 점에서 뜻 깊다. 이 단체는 문화예술이라는 도구를 통해 지역민이 스스로 지역을 발견하고 서로 연결함으로써 지역을 새롭게 이해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 가령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피상적 접근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체득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행동과 실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맨발동무도서관이 2016년 시행한 시시콜콜 사업에서는 지역에 대한 접근 키워드가

11) 맨발동무도서관은 2022년 마을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하여 국가기록관리 유공포상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신선하게 경험했다. 국가단위에서 전개한 이 사업은 지역의 현안이나 지역성, 참여자인 주민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컨소시엄을 요구한 점이 남달랐다. 즉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도 다양한 주체들이 결합하여 협업하는 구조, 이를 통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끌어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지닌다. 지역, 지역성, 지역화는 ‘지역이 무엇이나’라는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 간의 관계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활동’에 가치를 두고 있다. 지역화에 대한 인식의 전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방이양의 맥락에서 볼 때, 예산 항목을 특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예산 확보의 안정성은 우려할만한 지점이다. 다행히 현재로서는 여기에 관한 현실적 위협은 없어 보인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인식의 확장과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동 노력이 필요한 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역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예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용공간의 확보는 필수적이라 본다. 지역화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기초단위에서 거점 공간이 중요하다. 이 경우 일상성과 지속성, 친숙성을 반드시 담지해야 하는데, 작은 마을 단위, 골목 단위의 공간이 효과적이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수집된 이야기는 지역의 현황과 이슈를 도출하는 원천일 뿐만 아니라 아카이브와 컨소시엄을 통한 협치의 기반이다. 그런데도 광역단위의 거점공간은 너무 멀거나 오히려 공소하며, 작은 단위의 공간에는 예산도 인력도 없는 실정이다. 그만큼 공간을 조성하는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를 내장하고 있는 셈이다.

공간 문제에 관련하여 교육청-학교와의 견고한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였다.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지역화 전략에서 공론장의 확보와 시스템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인식의 확산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③ 제3그룹: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요구와 도전

-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공급자, 프로그램 개발, 심의·컨설팅·모니터링 등)
- 부산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기관 및 단체 네트워킹
-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세대 문제(OB vs. YB vs. 신규단체)
- 문화예술교육 주체의 생계 문제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전략(장르별, 통합장르, 디지털 기술융합)
- 문화예술교육 학습자와의 관계

제3그룹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였다. 융복합, 창의랩, 도시재생, 지역특성화, 꿈다락 등 다양한 층위에서 상당 기간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몇몇 단체들이 다양한 경험을 소개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의미의 확장, 고유성과 가치문제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예술교육의 고유한 가치를 바탕으로 개념 정의가 필요하며, 문화예술교육 기획, 행정, 강의, 홍보 등 다양한 층위의 업무에 관해 용어 정의와 더불어 직무기술(job description)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함께 사는 문화마을공동체에서는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교육과정을 거쳐 지역특성화 사업을 수행했다. 또따또가 입주작가로 문화예술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모임을 지속적으로 조직·운영했다. 개인의 역량 강화와 연구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디벨롭(development) 하고 있으며, 사업영역 역시 확장하고 있다. 모이다아트협동조합은 지역특성화사업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사업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단체로 성장한 사례다. 문화예술교육사업 모형이 지닌 내재적 한계를 인식하고 문화예술교육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단체의 자각이 성장을 이끌었다. 예술전문단체로의 성장은 과감한 투자를 동반한 모험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단체 자체의 역량 강화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과제로 삼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지자체에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고 일정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다

만 지역성과 직결하여 역사문화자원에 단선적으로 접근하는 행태에 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심의, 컨설팅, 모니터링에 관한 문제점도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먼저 심의위원이 문화예술교육이나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컨설팅이나 모니터링은 단체의 수준과 필요에 적합한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심의위원 선정이나 절차에 관한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컨설팅과 모니터링은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2022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즉 경륜 있는 단체에는 모니터링만 실시하고, 신규단체는 ‘전문가-센터-다른 단체’가 결합하여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다각적인 의견을 제공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평가의 문제가 뒤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리에서 평가에 관한 논의가 일부 이루어졌다. 평가는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우선적으로 평가지표를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삶의 질에 관여하는 부분, 즉 질적 평가의 방법론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문화예술교육단체들이 감당해야 하는 결산과 보고 등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문제는 까다롭고 귀찮기는 하나, 대체로 이러한 절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다. 경남지역에서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한 사례가 있으나 개별 단체의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고 한다.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기관 및 플랫폼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수행단체와 강사, 프로그램, 학습자 등 다양한 층위의 논의가 집약되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이번 집담회에서 전담 지원기관의 설치 문제가 강도 높게 제기되었다. 부산문화예술교육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할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며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기임에 틀림없다. 현재 부산문화예술교육은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이는 부산문화재단 문화교육팀의 다른 이름이다. 따라서 공간, 인력, 예산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셈이다.

좋은 프로그램이 안착·지속되고, 공유·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예술과교육 도르래에서는 창의랩 경험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인쇄매체와 전자매체(pdf)로 배포하였다. 공유라는 의도에서 출발했으나 매뉴얼 제작 과정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기도 했다. 기획자와 예술강사의 꾸준한 자기계발과 연수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주민의 삶과 밀착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을 위해서는 2년 이상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실제 장기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프로그램을 높은 수준에서 디벨롭할 수 있었다는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화예술교육의 미래를 위해 계속해야 하는 것, 중단해야 하는 것, 창조적으로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을 사유하는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디벨롭 역시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단체 간 네트워크의 형성과 유지, 단체들의 연대에 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영세한 개별 단체나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부산문화재단이 나서거나 중간조직을 만들면 좋겠다는 견해도 있었다. 조직체가 형성된다면 가입할 의사는 충분했다.

④ 제4그룹: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사업의 거버넌스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역센터, 광역-기초재단의 거버넌스
- 중앙-광역-기초센터의 역할
- 중앙-광역-기초센터의 협치 문제
- 역할별 성과 및 향후 과제
- 교육청과의 협치

제4그룹에서는 정책과 사업의 거버넌스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지방이양과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라는 도전을 고려할 때 반드시 살펴야 할 지점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역센터, 광역-기초센터의 거버넌스 문제가 주요한 논의 대상이었다. 공간 문제나 강사 확보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나 교육청과의 협치 문제도 일부 거론되었다. 현재 두 곳만 설치되어 있는 부산지역 기초문화재단의 관계자가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하였다.

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중 지역화, 지역 중심이라는 과제가 매우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중앙

에서 설계한 규격화된 사업이 지역 단위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이 스스로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거버넌스의 경험치가 거의 없는 데다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였다.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하더라도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 어려웠으며, 심지어 기초단위의 거버넌스를 누구와 구축해야 하는지 주체를 설정하는 데도 혼란이 깊었다.

이제껏 거버넌스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이나 광역단위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의 개념을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주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볼 때, 이들 주체들의 의견을 토대로 기획하는 일이 거버넌스의 시작이라 보기도 했다. 기초단위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기초단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기초단위에서는 생활문화, 복지, 일상 체조, 멘탈케어와 보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들의 살갓에 가닿고 있으므로 문화예술교육과 결합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넓기 때문이다. 또한 실체가 없는 추상적 개념인 중앙보다는 훨씬 구체적인 현실이자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기초단위의 주체가 반드시 기초문화재단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표출되었다. 도시재생센터, 생활문화센터, 마을센터 등이 거점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진흥원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기초센터에서는 문화예술교육과 유사한 활동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업명이나 지원부서의 명칭에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워딩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생활문화 영역과 혼재되어 있으며,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기초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은 평생학습과 생활문화,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중첩되면서 정량적 평가로는 우수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기초지자체의 행정 영역에서 협의체 설치와 협치 문제를 충분히 다루고 있는 현실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이를 재론한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컸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가시적 성과가 단기간에 나오기 어려우므로, 예산이 예년 수준에서 답보상태에 머무는 일도 문제점 가운데 하나였다.

기초단위에서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공간 문제다. 기초단위에서는 현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하지만 장소 부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다.

현장에서는 접근성이 뛰어난 학교나 지자체가 보유한 공적 공간을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여기서 중앙-광역-기초 단위의 거버넌스 이전에 역할 구분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관리 주체가 서로 다른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협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기초단위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을 맡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다행복교육사업을 예로 들어 지역민을 교사로 맞아들여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한편 강사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럼에도 교육부나 교육청과의 협치란 실효성 없는 협의체를 남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기관 차원이든 개별 학교 차원이든 교육의 견고한 보수성을 허물기가 난망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그리고 중앙-광역-기초 단위, 그리고 민간 수행단체를 동등한 위치에 두고 논의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원론적인 질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히려 기초단위가 독립성·자율성을 잃고 흔들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대구지역에서는 광역-기초 간의 협치와 역할 분담에 대해 밀도 높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사례에서 볼 때, 동일한 광역단위 안에서도 기초단위로 들어가면 지역적 특색, 기관의 규모와 의지, 담당 부서나 직원의 유무에 따라 편차가 커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령, 수성구의 경우 자율성을 담지한 가운데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활동하고 있다. 지역민들의 요구 역시 편차가 크다. 자비를 부담하더라도 수준 높은 교육을 요구하기도 한다. 지역 안쪽에서도 프로그램의 질적 강화와 세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거버넌스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며, 참여, 개방, 공유, 네트워크의 카테고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만이 유일한 행위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수평적 협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버넌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주체들의 인식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문화예술교육이 생활문화, 복지, 교육 등과 상호 중복되면서 횡적으로 과다하게 펼쳐지는 현상을 수렴하면서 여러 기관의 사업과 행정적 중첩 현상을 고려하여 거버넌스의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셋째,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와 구조를 마련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다.

⑤ 제5그룹: 디지털 전환과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 문화예술교육과 기술의 결합
- 문화예술교육과 매체의 확장
- 디지털 전환과 문화예술교육 정책 지원
-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의 환경
-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역량
-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제5그룹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문화예술교육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화두 앞에 기술, 디지털 격차와 리터러시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졌다. 기술의 이슈가 문화예술의 본원적 가치를 초월하지는 않기를 바라는 기조가 명확했다.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기술과 결합해 바람직한 경험치를 생산하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러한 우려가 아직 현장에서 관찰되지는 않는다는 진단을 덧붙였다.

한편 시류에 따라 이 영역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현상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기술을 결합한 다원예술이나 융복합예술이라는 영역이 상식적 수준이나 공소한 상태에 머무르는 현상을 거론하기도 했다. 기술이 도구적이거나 방법론적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오늘날 기술을 활용하는 수준이 원천기술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현상을 짚으면서 아날로그적 기술, 손기술의 축적을 강조하기도 했다.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공간에 뛰어들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 요컨대 문화예술교육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확보하는 데는 유용하겠지만, 이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즉 소통, 공감, 창의적 표현의 확대와 연관을 짓되, 삶의 가치를 고양하는 지점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인적 자원들은 예술대학에서 배출되는 전문인력과 연관

될 수밖에 없다. 문화예술교육은 끊임없이 개념이 확장되고 있지만 대학의 예술교육은 여전히 장르를 중심으로 전문 연주자 양성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술이 더 이상 전통적인 영역이나 장르의 순수성을 고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인력을 배출할 수밖에 없다. 대학교육에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예술대 출신의 경우,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 예술가로 성장하는 과정에 디지털 매체에 접근하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매체에 대한 접근 능력을 신장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이때 관련 장비를 갖춘 공간은 필수적이다.

예술가 대상 디지털 교육이 아니라도 공간 문제는 절실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과 기술의 결합을 도모할 때도 시설과 장비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 프로젝트형 사업이 아니라 공간을 기반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부산의 문화예술교육 수준을 고려할 때 특화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이른바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이다. 공간 규모는 생활문화센터 수준에서 나아가 상당한 규모의 면적을 확보하고 시설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간 20~3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본다. 1년 단위로 운영하는 현행 플랫폼도 한계가 자명하다고 인식했다.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도 무시할 수 없는 의제였다. 서울에는 기초재단이 100개 이상 존재하는 반면, 부산에는 2곳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초재단이 많은 곳에서는 오히려 기초단위와 광역단위 간 협력할 지점이 적다. 기초재단은 예술가 지원보다는 주민들의 문화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때문이다. 부산에서는 ‘15분 도시 부산’ 정책에 따라 새로운 공간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러한 공간에서 질적 수준을 담지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 사업의 전반적인 프레임을 바꾸어 사업 기간과 예산을 재편하고 새로운 주체들과 공간을 마련하며, 다양한 주체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사업을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 안에서 관련 기

관과 연계하여 학제를 갖추는 시도를 한다면 예술시민대학이나 예술대학 체계를 갖춘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있었다.

제1그룹에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문화예술교육 개념의 확장도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였다. 과거에는 예술가 지원을 중심으로 예술진흥정책을 펼쳤지만 문화예술교육을 시작으로 시민과 수용자 중심으로 예술진흥정책의 방향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부산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본부를 선도적으로 설치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단위에서 공론장을 마련하고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가 아카이빙으로 이동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카이빙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므로 반드시 사업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마치 유행처럼 곳곳에서 시도하면서 아카이빙을 위한 아카이빙에 그치거나 이익집단으로서 아키비스트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카이빙의 사업화 문제는 출발점에서부터 정교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역특성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중앙이라는 개념과 대척점에 위치하므로 그 자체로 중앙 중심의 시각을 반영한 개념이라는 뜻이다. 지역특성화사업은 처음에 일자리와 연동되어 문화예술교육가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지만 천편일률적인 사업 모형과 프로그램으로 일찍부터 한계에 도달했다고 본다. 재단이 주도하여 주제를 제안하는 방식도 부적절하다고 보며, 한층 더 자유롭고 유연하며 개방적인 사업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2) 논의의 종합과 시사점

5차례에 걸쳐 진행한 전문가그룹 집담회는 5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진행했다. 각 주제별로 경계를 넘나들며 서로 개입하거나 충돌·융화했다. 5회에 걸쳐 색선별로 진행한 전문가 집담회는 종합적인 맥락에서 하나의 담론장으로 통합될 수 있었다고 본다. 무엇보다 강조된 지점은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확장과 인식 전환, 기초단위 거점의 확보와 육성, 운영주체의 전담기구화 및 전용공간과 인력의 확보라 할 수 있다.

논의를 종합하여 ① 개념과 가치, ② 정책과 거버넌스, ③ 기반, ④ 수행주체와 프로그램으로 대별하고, 내용과 시사점을 [표 21]에 제시하였다.

[표 21] 전문가그룹 집담회의 논의 결과와 시사점

주제	구분	영역	내용	시사점
개념, 가치	개념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은 명확한 정의 부재 ◦ 학교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예술, 평생학습, 보건복지 영역과의 분리와 연계는 현장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 ◦ 예술진흥의 핵심은 예술가 지원중심에서 시민과 수용자 중심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장(field)으로서의 열린 정의 필요 ◦ 포용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확장적 개념 요구 ◦ 문화예술교육의 인식 전환과 가치 확산 필요 ◦ 5년 장기종합계획의 유효성에 대한 고민 ◦ 개념 정의와 직무기술(job description) 필요
	가치	정치·경제적 접근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삶의 질 제고 ◦ 문화민주주의 실현 ◦ 치유·회복·행복 추구하고 홈베이스로서의 예술 ◦ 소통·공감과 사람을 사귀는 매체로서의 예술 ◦ 사회적 문제 해결(사회적 소수자, 세대 갈등, 가족 형태의 변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 ◦ 사회문제의 환기와 해결(생태, 환경 문제 등) ◦ 지역성에 대한 이해 심화 ◦ 지역 문화역량과 공동체성 강화 ◦ 개인의 고통 → 사회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요구 인식 ◦ 문화예술의 역할론 제고 ◦ 다양한 대상과 주제의 프로그램 개발 필요

범주	학교 문화예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문화예술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차이 ◦ 학교문화예술교육 종사자들은 협회를 통해 의견 개선 및 협상 가능 ◦ 사회문화예술교육 장소로서의 학교 개방 문제 논의 필요 ◦ 학교를 기반으로 지역자원의 연결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론적 수준에서 학교-사회 양자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 ◦ 학교 개방 및 지역자원 연결과 관련 교육청-학교-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 및 거버넌스 체계 확립 필요
	생활문화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단위에서는 문화예술교육과 구분 불가능, 양자 간 결합하는 기조가 뚜렷함 ◦ 기초재단이 없는 곳에도 생활문화센터 존재 및 운영 ◦ 보건복지 영역과 연동하여 심리 및 신체 관리(돌봄, 체조 등) ◦ 광역단위에서도 구분이 모호 ◦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 설치는 문화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도적인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관리방안 필요 ◦ 기초단위에서 다양한 주체 간 협의체 구성 및 생태계 조성 필요 ◦ 광역단위에서 기초단위의 네트워크 주도 단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방식 검토 필요 ◦ 문화예술교육 종사자들의 자기 주도성 강화 필요
	평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교육과 의미 중첩, 명확한 구분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지점 확인 및 효율적인 결합방안 모색
	마을활동, 도시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유사, 경계 모호 ◦ 예술가 레지던시 사업은 예술가가 상주하며 주민과 교류 및 돌봄 활동을 전개하므로 마을활동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자 모두 공동체성을 담지해야 함 ◦ 마을 활동, 도시재생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을 도시의제로 다루어야 함

			나 도시재생과 변별력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 레지던시 사업과 같이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 제기
		예술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의 가치 변화와 함께 창작방법 및 의의 역시 변하고 있음 ◦ 예술창작 활동의 공공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변화에 따른 예술창작 활동의 새로운 의의 모색 필요 ◦ 스포츠식 선택과 집중, 엘리트주의, 성과주의 예술창작을 지양해야 함
		기술·디지털 리터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 이슈가 문화예술 이슈를 초월하지 않아야 함 ◦ 문화예술교육은 디지털 리터러시 확보 및 디지털 격차 해소의 좋은 수단 ◦ 기술은 도구적·방법론적 모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과 표현력, 삶의 가치 제고로 나아가야 함 ◦ 새로운 기술이나 매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 편중 경계 ◦ 전통적 학제 기반의 예술교육은 디지털 매체 접근 및 디지털 역량의 배양에 소홀 ◦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설비 및 공간 필요 ◦ 디지털 기술 활용은 문화적 격차 해소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기술 활용의 의의와 가치 인식 ◦ 예술강사들의 새로운 매체 접근력,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 노력 필요 ◦ 디지털 리터러시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디지털 기술 결합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광역단위 거점 및 장비 구축 필요 ◦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예술교육과정 개편 필요

		예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교육의 가치와 목표 변화 ◦ 대학 예술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비중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예술교육 제도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구조화 방안 모색 필요
정책 · 거버넌스	정책 · 행정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법령뿐만 아니라 광역, 기초, 교육청 단위에서 관련 조례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변화 및 문화예술의 역할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 현실화 전략 필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은 규모에 비해 정교하고 철저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인식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함
		문화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지역 16개 구·군 문화행정의 불균형 ◦ 지역 내 소외지역에 대한 제도적 집중지원은 양극화 강화의 원인 ◦ 관치행정 자체의 관습적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자의 문화에 대한 몰이해가 여전함 ◦ 강사비 인상 단행과 같은 부산의 선도적 문화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중심의 문화행정 필요 ◦ 16개 구·군 권역별 분배 논의 필요 ◦ 공간, 사람, 제도 면에서 안정적인 문화행정 추진 필요 ◦ 적극적 문화행정 필요
		심의 컨설팅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의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에 대한 인식 부족, 현장 이해 결핍, 전문성 부족 ◦ 단체 수준과 단계에 맞는 컨설팅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 선정 절차 재검토 필요 ◦ 맞춤형 컨설팅 필요 ◦ 유연한 모니터링 필요

지역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시뿐만 아니라 기초생활권(동네) 거주 모든 주체를 포괄하는 개념 ◦ 개별성, 특수성, 보편성을 담지한 자기정체성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단위 지역과 기초단위 지역을 아우르는 거버넌스 체계 필요
	지역특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의 대척점으로서의 지역을 인식하는 경향 자체가 모순 ◦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활동가의 성장에 이바지 ◦ 동일한 모형의 프로그램 양산으로 한계에 직면했으며, 주제특화 방식으로 선회한 것도 구태의연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정체성이 아니라 주민 관계성과 관계성 기반 활동 필요 ◦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업모형 개발 필요
	지역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 활용의 표피적·단선적 접근 경향 심화 ◦ 16개 구·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조화된 지역화 전략 모색 ◦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파악과 수렴 중요 ◦ 컨소시엄을 통한 협치와 협업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 활용방식의 다각화 전략 개발 필요 ◦ 주민 의견의 상시적인 수렴 통로 마련, 체계적 운영 필요 ◦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결합한 컨소시엄 구조로 지속성 확보
	공동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리텔링에서 아카이빙으로 전환 ◦ 이익단체로서의 아키비스트, 아카이빙을 위한 아카이빙 경계 ◦ 국가에 대한 반담론으로서의 공동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아카이브를 통한 공동체성의 발견과 가치 인식 필요 ◦ 기초단위 지역 내 오프라인 아카이빙 거점 조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의 붕괴, 사회적 단절, 개인의 원자화에 대응 	
거버넌스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치행위와 방식에 대한 의미 내포 ◦ 기관의 생존 문제 함의 ◦ 거버넌스 경험의 부재는 위기로 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버넌스의 개념, 주체, 프로세스에 대한 인식 필요 ◦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진흥원-광역-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광역의 관계에서 중앙은 추상적 개념이며 실체가 없다는 인식 확산 ◦ 광역-기초의 관계에서 광역의 개념과 실체 모호 ◦ 지역단위,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의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버넌스 형성 및 운용과 관련하여 중앙-광역-기초 간 협치를 위한 역할 분담 필요 ◦ 기초단위 역할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필요 	
	다양한 차원의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학교-광역-기초-지자체 거버넌스 ◦ 광역시-광역재단 거버넌스 ◦ 광역단위 내에서도 문화격차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의 거버넌스 관련 인식 공유 필요 ◦ 광역시 담당 공무원의 가치 인식 필요 ◦ 공공-민간-시민사회 간 수평적 협력 및 네트워킹 확보 필요 	
	기초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흥원의 기초거점 네트워크 계획은 서울에 비해 기초재단 수가 턱없이 적은 지역에는 불리함 ◦ 기초재단에서는 예술가 지원보다 주민 소통 및 참여도 제고에 중점을 두며, 기초재단이 활성화된 곳은 광역단위와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재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드시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단위 거점 마련과 육성 지원사업 필요 ◦ 기초단위 거점 마련과 사업주체 발굴 필요 ◦ 광역단위 종합계획에는 기초단위 공간 마련과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기초단위 종합계획의 수립 필요 	

			<p>단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혼재하여 기초재단의 필요성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다분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단위는 실질적인 문화 활동과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지는 층위로, 지역화의 기반이자 거버넌스의 출발이라는 인식 필요 ◦ 기초재단 설립에는 단체장의 의지 중요 ◦ 재단설립 외 생활문화센터, 도시센터 활용 가능 	
기반	운영주체	전담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기구는 체계적·종합적 사업지원, 플랫폼 관리와 운영, 인력관리, 홍보, 아카이빙, 거버넌스의 구심점 ◦ 시와 교육청의 지시와 요구에 따라 문화재단과 놀이마루의 역할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음 ◦ 자율적인 독립센터로서의 전담기구는 필수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 문화예술교육 전담 기구 설치 필요 ◦ 정책, 인력, 예산, 공간 운영의 자율성 확보
	정책	혁신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적 정책을 고려해야 함. 가령, 평생교육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학제를 갖추는 시도나 시민예술대학의 체계로 나아갈 수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적 정책의 개발과 시도 필요
	장소	전용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은 필수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단위 전용공간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단위 전용공간은 상당한 면적 규모와 예산, 시설을 갖춘 거점 특화 공간으로서의 위상 확보가 중요함 ◦ 전용공간은 온·오프라인 아카이빙, 네트워킹, 강사 재류(在留), 시민체험 등 다양한 활동의 기반 역할 수행 	
		일상의 거점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광역단위 거점은 거대하나 공소한 반면, 기초단위 거점은 공간이 있더라도 인력과 가용 예산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 마을 단위, 골목 단위의 일상 거점에서는 이야기와 요구의 수렴과 피드백이 상시적·지속적으로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골목 단위 공간의 거점화 전략 필요 ◦ 공간지원 유형의 다양화 필요
수행 주체·프로그램	단체	처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하고 열악한 현실 ◦ 문제점을 인식한다 해도 문제해결에 쉽게 나서기 어려운 상황 ◦ 이익집단화하는 경향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 강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 필요 ◦ 단체 간 자율 네트워킹 필요 ◦ 연구모임 필요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들의 네트워킹을 촉진·관리하는 중간조직의 필요성 제기 ◦ 단체 간 자율 네트워킹 프로그램 개발 요구 증대 ◦ 단체 생존과 지역생태계와 직결되는 네트워킹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간 자율적·실질적 네트워킹 촉진 지원 필요 ◦ 문화예술교육의 환경 변화와 정보 공유 등 연대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제고 필요 ◦ 단체의 역량 강화 필요

			<p>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지역에서는 정산 및 행정 관련 코디네이터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한 적 있으나 현실적인 한계 노출 	
프로그램	콘텐츠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 및 공교육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출발 ◦ 삶에 질문을 던지는 매개로 개념이 확장되면서 인문학과 자연생태 등 다양한 영역의 콘텐츠화 진행 ◦ 예술 스킬이 아닌 사유의 토대 확장 및 자기화 과정으로서의 콘텐츠 개발 ◦ 학습자의 선택권 확대 ◦ 가용 콘텐츠의 경계 확장과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사회의 문화 및 커뮤니티 형성방식의 다변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수렴하는 방향으로 사업 재편 필요 ◦ 콘텐츠의 양과 경계 확장, 질적 요소 간의 균형 필요
		대상의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 대상이 대다수, 대상 확대를 통한 혜택 방안 고려 ◦ 생애주기 기준으로 대상화 및 사회적 소수자, 육아여성,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위치 기준으로 설정 가능 ◦ 1:1 방식이나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통한 수혜의 불평등 해소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세분화 전략 필요 ◦ 부산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상화 필요 ◦ 현장 접근이 어려운 대상을 위한 운영 방식 재편 필요
		융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이나 기술 융복합은 뚜렷한 실체가 없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 및 기술 융복합의 근원적 가치 이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쉬운 시도로 가능성 존재 • 유행에 편승하는 경향 경계 	요
	비대면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수업 시행 초기에 비해 수업의 필요성 인식 증대 • 비대면 수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전략 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수업전략 모색 필요 • 비대면 수업 관련 강사 역량 강화 필요
	질적 수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시별 계획 수립은 크게 개선되어 있으나 질적 도약 필요 • 목적별 전문성 강화를 고려해야 함. 가령, 치유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은 기획단계부터 심리상담 영역과 결합 가능 • 학습자들의 수준이 높아져 사적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더라도 질적 수준이 높은 교육을 선호함 • 긴 호흡의 교육과정안 개발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의 감각 질(퀄리아), 결과보다 과정, 기술보다 개념을 중시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과정 중심의 평가 및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관리 방안 필요
	특화, 브랜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에서는 특화 프로그램이 부재 • 부산에는 해양기술 관련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음 • 부산에는 해양문화예술교육을 특화형으로 고려할 수 있음 • 부울경 광역단위 프로그램 개발 시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연속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우수 프로그램 보호 및 활용방안 모색 필요 • 부산 특화 프로그램 개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연속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램 디벨롭이 이루어진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우수 프로그램의 장기 지속화 전략 필요 ◦ 마켓을 통한 확산, 프로그램 이용 유료화, 저작권 보호 방안 마련 	
	강사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은퇴자, 생활미술인, 지역활동가, 마을활동가 등의 인적 자원화. 가령, 부산시 교육청 다행복교육사업에서는 마을 주민을 교사로 활용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인적 자원의 활용 전략 필요
		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교육 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인식 부재 ◦ 교육과 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 예술에서 전통적 장르의 순수성을 고집하기 어려운 현실 ◦ 문화예술교육을 예술가가 아니라 예술교육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육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필요 ◦ 새로운 인력의 지속적 유입 구조 필요 ◦ 연수, 연구, 자기계발, 인턴십 등 전문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필요

IV.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

1. 추진 방향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① 부산 문화예술교육의 현황, ② 제1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이행 결과, ③ 부산 문화예술교육 환경의 변화, ④ 지역사회와 현장의 현실적 요구를 파악하였다. 그 가운데 지역사회와 교육현장의 현실적 요구를 종합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설문 조사 결과와 전문가그룹 집담회의 논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의 방향성을 다음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지역이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문화예술교육의 기반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산은 제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하였다.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놀이마루 운영 프로그램을 보급하였으며, 컨설팅을 지원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역의 기초센터 지정·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도에도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이 여전히 부재하고, 기반 시설 역시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기반 및 지원체계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거나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내 공공 문화예술기관과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의 지역 자치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고 효과를 확산시켜야 한다. 제1차 부산종합계획 시기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에 비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실정이다.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교육을 다루는 매체를 발간하고, 문화예술교육의 관리자 및 매개자, 문화행정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소양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체계를 개편하고, 시민의 문화예술교육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인식 강화와 효과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일상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제1차 부산종합계획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상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제1차 부산종합계획에는 지역 중심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문화예술교육 자원을 확충하며 지역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강화하기에는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높아진 편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2차 부산종합계획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일상성을 목표로 삼는 추진전략을 세워야 한다. 조례를 제정하고 기초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초단위 기관 및 공간을 주축으로 하는 사업을 운용하며 생활권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세부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경험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제1차 부산종합계획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단순한 문화향유를 넘어서 시민문화역량을 강화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의제를 살펴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질적으로 심화해야 하며,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또한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 비전과 목표

제2차 부산종합계획은 정부의 제2차 정부종합계획의 내용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수립해야 한다. 제2차 정부종합계획에서는 비전을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2022.12)으로 세우고, 일상에서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역에서 즐기는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2차 부산종합계획은 지역이 주도하는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을 강화하며,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제2차 부산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

비전	어디서나 모두 함께, 부산문화예술교육		
목표	일상에 스미는 문화예술교육	지역이 이끄는 문화예술교육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1.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1) 수요자 맞춤형 사업체계 강화	① 사업공모 방식 재편 ②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③ 지역 특성 반영 프로그램 특화	
	(2) 콘텐츠 다각화 및 질적 심화	① 콘텐츠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② 부산형 창의 콘텐츠 개발 연구 활성화 ③ 컨설팅 및 모니터링 방식 재편 및 현실화	
	(3)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	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②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 연수 및 R&D 활성화	
2. 지역 문화예술 교육 자율성 강화	(4)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주도성 강화	① 광역센터 역할 재정립 ② 광역 단위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조성 ③ 부산문화예술교육 지원기구(협의회, 협의체) 운영 활성화	
	(5) 사회서비스로서의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강화	① 교육청과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활성화 ② 문화예술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방안 다각화	
	(6) 기초 및 생활권 연계 협력체계 및 기반 구축	① 기초센터 설립 추진 및 지원 조례 제정 ② 기초단위 내 공간 발굴 및 활용성 제고 ③ 생활권 및 기초단위 기관(공간)과 협력체계 구축	
3. 정책 기반의 입체적 고도화	(7) 전문인력 양성과 인적 역량 강화	① 인력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② 문화예술교육단체 간 자율 네트워킹 지원 ③ 역량 강화 프로그램 다각화	
	(8) 사업 지속성 강화	① 연구 활성화 및 성과의 사회적 확산 ② 수행단체 주도형 연구사업 개발 및 다각화 ③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다각화	
	(9)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및 공감대 확산	① 가치 확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② 시민 문화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③ 세계시민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본 연구는 ‘어디서나 모두 함께, 부산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세우고, ‘일상에 스미는 문화예술교육’, ‘지역이 이끄는 문화예술교육’,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의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마련하였다.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3개의 추진전략과 9개의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5개의 세부 사업을 함께 제시하였다. 비전과 정책 목표, 추진전략에 따른 추진과제와 세부사업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3]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추진전략별 추진과제와 세부사업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 사업	주요 내용
1.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1) 수요자 맞춤형 사업체계 강화	① 사업공모 방식 재편	◦ 공모방식 재편 ◦ 장기지원형 사업의 제도화
		②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 프로그램 운영과 편성의 자율성 강화
		③ 지역 특성 반영 프로그램 특화	◦ 부산 특성을 고려한 노년, 중·장년, 대학생, 다문화 가족 대상 사업 활성화
	(2) 콘텐츠 다각화 및 질적 심화	① 콘텐츠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 부산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통합관리 ◦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확산
		② 부산형 창의 콘텐츠 개발 연구 활성화	◦ 부산에 맞는 창의융합 콘텐츠로 자생력 제고 ◦ 장기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학습자 및 교육방법 관련 연구 등 콘 텐츠 질적 심화
		③ 컨설팅 및 모니터링 방식 재편 및 현실화	◦ 정교하고 객관적인 지표 개발 ◦ 맞춤형 컨설팅 및 유연한 모니터링 실시
	(3)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	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구축 ◦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세대별 디지털 기반 융복합 문화예 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②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 연수 및 R&D 활성화	◦ 예술강사 및 관련 인력의 디지털 기술과 매체 활용 능력 신장 ◦ 디지털 기술 및 매체 활용한 프로그램의 지속적 R&D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 사업	주요 내용
2.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율성 강화	(4)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주도성 강화	① 광역센터 역할 재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개정으로 광역거점으로서의 역할 강화 ◦ 광역-기초 간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개최, 프로그램 개발 등 기초 단위 기관 및 공간과 연계 ◦ 학교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② 광역 단위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카이빙, 네트워크, 콘텐츠 개발, 강사 재류, 시민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활동공간 조성 ◦ 디지털 리더러시 등 미래형 교육을 위한 장비와 공간 확보
		③ 부산문화예술교육 지원기구(협의회, 협의체)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협의회 운영 현실화로 실질적 발전방안 모색 ◦ 광역센터 중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별도 구성 및 정기 운영
	(5) 사회서비스로서 의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강화	① 교육청과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과 공유, 참여, 개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사회서비스로서의 문화예술교육 통합지원 방안 활성화
		② 문화예술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방안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실무자 워크숍 정기 개최 및 공간 협력체계 구축 ◦ 국공립 문화기반시설 협의체 구축 및 지원법 이행 ◦ 지역 내 문화예술 기반 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 사업	주요 내용
	(6) 기초 및 생활권 연계 협력체계 및 기반 구축	① 기초센터 설립 추진 및 지원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 ◦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및 연간계획 수립 ◦ 기초센터 사업 개발 및 운영 활성화
		② 기초단위 내 공간 발굴 및 활용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단위 내 가용(유휴) 공간 조사 및 활용방안 모색 ◦ 부산시 정책과 연계한 문화예술공간 개발 및 활용 ◦ 마을/골목 단위 기관 및 공간의 소규모 거점화 ◦ 주민 논의의 활성화 및 공론장의 시스템화
		③ 생활권 및 기초단위 기관(공간)과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 및 기초단위 기관(공간) 컨소시엄 체계 구축 ◦ 연계사업 개발, 공동 워크숍 개최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성 확보 ◦ 생활문화, 복지, 평생교육, 마을 활동 사업과의 점점 확대 ◦ 공동체 프로젝트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 문화예술교육사-마을교사-평생교육사-사회복지사-생활문화 등 유사 정책 협력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 사업	주요 내용
3. 정책 기반의 입체적 고도화	(7) 전문인력 양성과 인적 역량 강화	① 인력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종합아카데미 기획 및 운영 ◦ 주민활동가 문화예술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과정 신설 및 운영
		② 문화예술교육단체 간 자율 네트워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주도형 실질적 네트워킹 활성화 ◦ 단체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연대 방안 모색
		③ 역량 강화 프로그램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멘티 지원 및 대학 연계를 통한 전문성 제고 ◦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제고 ◦ 인터십 제도 활성화로 실무경험 확대
	(8) 사업 지속성 강화	① 연구 활성화 및 성과의 사회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별 실태조사를 통한 연간계획 수립의 기초 마련 ◦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실시
		② 수행단체 주도형 연구사업 개발 및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개발 및 학습자 점점 관련 연구 활성화 ◦ 수행단체 주도형 연구사업 개발 및 실행
		③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아카이빙 및 연구 기반 홍보 사업 실시(마켓 등) ◦ 부산문화예술교육 안내 책자, 종사자를 위한 길라잡이, 기초단위 기관 및 공간, 단체, 콘텐츠 책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물 발간 ◦ 예술교육지원센터 홍보 캐릭터 및 애드보커시 영상 지속 활용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 사업	주요 내용
	(9)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및 공감대 확산	① 가치 확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관리자 및 매개자, 문화행정가, 학습자 대상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원연수 프로그램 다각화
		② 시민 문화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와 회복(resilience), 인권, 문화적 다양성, 세대 갈등, 소통 등 지역사회 현안과 관련한 문제해결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가치 발굴 및 사회적 확산 프로그램 개발
		③ 세계시민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혐오와 차별, 빈곤과 불평등 등 전지구적 문제 인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세계시민성 이해 증진

3. 추진전략별 과제와 사업

1)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어디서나 모두 함께, 부산문화예술교육’은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이 제시한 비전이다.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목표는 일상에 스미는 문화예술교육, 지역이 이끄는 문화예술교육,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이다. 일상에 스미는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제시하였다. 부산지역 문화예술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이해에 맞게 일상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급 측면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추진과제로 수요자 맞춤형 사업체계 강화, 콘텐츠 다각화 및 질적 심화,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을 제시하였다.

(1) 수요자 맞춤형 사업체계 강화

① 사업공모 방식 재편

문화예술교육의 지역성과 자율성, 그리고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원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사업공모 방식을 통합적으로 재편하는 일은 지원단체가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실천 전략이다. 대상을 세분화하지 않고 일괄공모로 선정하여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도모할 수 있다. 장기지원형 사업을 제도화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질적 성장 및 지역화를 도모해야 한다. 장기지원형 사업의 제도화는 현장에서 강도 높게 요구하는 사안이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추구할 수 있으며,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개선해 나감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②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공모방식은 통합형으로 진행하되,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다양한 수요와 상황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기존에도 생애주기와 세대, 직업, 취향 등을 고려한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장애인, 소수자, 외국인, 다문화가족, 세대 등을 대상과 주제로 다루어왔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통합공모 방식의 구조 안에서 더욱 섬세하게 계획하여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세대, 취향, 현대인의 커뮤니티 형성방식 등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운영 자율성도 강화되어야 한다. 예산편성과 기획, 프로그램 운영과 성과관리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③ 지역 특성 반영 프로그램 특화

부산의 인구특성으로 노년 및 중·장년층과 다문화가족, 대학 진학을 위한 인구 유입의 확대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신중년정책, 다문화가족정책, 대학생 인구 유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에서는 대학을 통해 유입된 청년들이 졸업 후에도 부산에 정주할 수 있도록 ‘교육을 중심으로 정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노년과 중·장년, 대학생,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특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콘텐츠 다각화 및 질적 심화

① 콘텐츠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그동안 구축해 온 현장의 경험을 하나로 모아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새로운 창조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통합관리 체계가 요청된다. 지금껏 부산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작·운영하였으며 수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성과와 결과물을 한자리에 모으고 활용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 기반, 즉 콘텐츠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부산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우수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확산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② 부산형 창의 콘텐츠 개발 연구 활성화

디지털 기술의 혁명적 발전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문화예술교육은 콘텐츠와 방법 면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여기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라는 과제까지 부여되면서 부산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창의 콘텐츠의 연구와 개발이 절실했다. 다양한 주제와 대상을 폭넓게 포섭하고, 여러 주제와 대상의 상호작용을 통해 콘텐츠를 개발·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실험적 시도와 과정의 경험을 축적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실험 환경과 개발 과정의 관리, 질적인 향상과 완성도 제고 역시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콘텐츠 개발 연구에 대해 문화예술교육 단체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단체들이 주도하여 장기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학습자 및 교육방법 등과 관련한 연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컨설팅 및 모니터링 방식 재편 및 현실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지식의 수명은 짧아지고, 새로운 의미 창출이 중요해진 시대에 교육은 결과보다 과정, 즉 과정에 대한 관리 능력을 강조하는 추세다. 부산문화예술교육에서도 과정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부산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평가시스템을 다각화하고, 컨설팅과 멘토링 등을 더 섬세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특히 양적 평가가 아니라 문화적·예술적·미적 경험으로서의 질적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며, 환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컨설팅은 단체의 수준과 현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진행하며, 모니터링은 단체별로 수용력이 다르기 때문에 유연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성과주의, 엘리트주의, 결과 중심 평가는 지양해야 한다.

(3)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

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디지털 전환은 다양한 유형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한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과 매체를 활용하는 디지털 기반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될 수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자, 비시민권자 등)을 위한 세심한 계획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장비와 기기, 공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②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 연수 및 R&D 활성화

문화예술교육의 성패는 양질의 프로그램이고, 그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데는 예술강사 및 관련 인력의 역량이 크게 작용한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속도에 발맞추어 예술강사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연수를 통해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및 교수법 개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과 매체 활용 능력을 신장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매체를 활용한 융·복합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R&D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지역문화예술교육 자율성 강화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2023~2027)의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목표 가운데 지역이 이끄는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율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추진과제로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주도성 강화, 사회서비스로서의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강화, 기초 및 생활권 연계 협력체계 및 기반 구축을 제시하였다.

(1)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주도성 강화

① 광역센터 역할 재정립

지금껏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중앙 문화예술교육의 전달체계이자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문화예술교육의 자율성과 지역 주도성을 강조하는 기류 속에서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부산지역의 문화자치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해야 한다. 광역거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은 필수적이다. 공간, 인력, 예산 확보 등 광역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연계를 강화하며,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및 협력 환경조성 등에서 광역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광역-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을 비롯해 문화예술교육 단체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공간 연계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원활한 정보교류와 의사소통 구조의 확보는 정책 변화와 흐름을 공유하고 의견 교환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마련하는 기반이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산문화재단과 분리·독립할 필요가 있다.

② 광역 단위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조성

부산문화예술교육의 정책과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광역단위 전용공간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산문화예술교육 기초자료의 축적과 아카이빙, 새로운 교육환경에 따른 실험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허브이자 부산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행의 플랫폼이 바로 전용공간이다. 아카이빙, 네트워크, 콘텐츠 개발, 강사의 재류, 시민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며, 디지털 리터러시와 뉴미디어 기반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기술과 기기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부산문화예술교육 지원기구(협의회, 협의체) 운영 활성화

부산문화예술교육이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산문화예술교육 지원 기구의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와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실무협의체는 광범위한 의견 개진 및 합의 도출에 이르는 구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기구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즉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실무협의체는 광역센터-기초단위 기관 및 공간-단체-학습자-학계 등 다자간 실무협의체로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자치와 분권을 지향하는 상향식 개방형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별도로 구성하거나 통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2) 사회서비스로서의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강화

① 교육청과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활성화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2022~2024)은 시민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연계를 명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로서의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층위에서 협력해야 한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협력이 가능한 지점을 모색할 수 있다. 예컨대, 문화예술교육 수요가 생활권으로 확장되면 생활권 내에 문화예술교육 공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 및 방과 후 미사용 학교시설은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밖에 공유, 참여, 개방을 전제로 폭넓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다. ‘학교는 지역사회를, 지역사회는 학교를’ 서로 활용할 수 있는 윈윈전략이 필요하다. 부산문화예술교육은 교육청과 협력하여 공유, 참여, 개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로서 문화예술교육 통합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② 문화예술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방안 다각화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추진과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으로 경제, 복지, 건강, 기후 등 행정 전 분야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문화예술교육은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되었다. 사회서비스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와 협력을 통해 지역자립형 문화예술교육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 무엇보다 6대 국공립 문화예술교육 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문화의집, 전수관)과의 협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기반시설 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문화기반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관별 실무자의 네트워킹을 통해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지역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3) 기초 및 생활권 연계 협력체계 및 기반 구축

① 기초센터 설립 추진 및 지원 조례 제정

행정의 지방이양과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전략에 따라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은 문화예술교육에서 필수적이지 핵심적인 사항이 되었다.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의 실효성을 위해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조례는 기초센터 설립과 예산 확보 및 센터 운영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기초센터가 설립과 더불어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및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광역단위 종합계획은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전개해야 한다.

② 기초단위 내 공간 발굴 및 활용성 제고

생활권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 공

간을 발굴·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기초센터와 연계하여 기초단위 내 가용 공간을 파악하고 공간 리스트를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초단위 내 유휴공간 활용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초단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은 마을이나 골목 단위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민 논의의 활성화 및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 기초단위에서 공간을 기반으로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생활권 및 기초단위 기관(공간)과 협력체계 구축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를 위해서는 생활권 및 기초단위 기관과 공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절실하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들 기관과 공간의 컨소시엄 체계는 문화예술교육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이기도 하다. 생활문화와 복지, 평생교육, 마을활동 사업과의 연계성을 폭넓게 검토하고 접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공동체 프로젝트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청년센터, 평생교육, 50+복합지원센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을교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등 지역의 다양한 인력이 문화예술교육의 자장 안에서 상호 협력하고 선순환하는 구조로 나아갈 수 있다. 생활권 및 기초단위 기관 협력체계는 예술가와 공동체 간 협력 예술 프로그램 즉, 참여예술과 커뮤니티 아트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며, 지역 아카데미 사업 활성화는 물론이고 빈곤, 일자리, 돌봄, 고립감, 안전, 생태환경, 마을통합 등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초다.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역량 강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3) 정책 기반의 입체적 고도화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의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목표 가운데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정책 기반의 입체적 고도화를 제시하였다. 추진과제로 전문인력 양성과 인적 역량 강화, 사업 지속성 강화, 문화예술 교육의 가치 및 공감대 확산을 제시하였다.

(1) 전문인력 양성과 인적 역량 강화

① 인력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부산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력양성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디지털 기반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성과 확산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종합아카데미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와 직결되는 지점이다. 생활권 문화예술교육의 확산을 위해 전문인력 확보 방식을 다각화할 필요도 있다. 가령, 오랜 경험이 있는 마을활동가나 마을교사를 일정한 교육과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강사로 인정해주는 주민활동가 문화예술교육강사 양성 과정을 신설하고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고등학생·대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세대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인턴십 및 서포터즈 제도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사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턴십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문화예술교육단체 간 자율 네트워킹 지원

문화예술교육 단체들 간의 자율적인 네트워킹은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반이다. 문화예술교육 단체들의 주도로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정보 교류, 문제점의 인식과 공유, 연대 방안 모색의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부산 문화예술교육의 아젠다 발굴과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부산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역량 강화 프로그램 다각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한편, 멘토-멘티 사업이나 대학과 연계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인력들의 국제적 감각과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 확장, 교육 능력의 신장을 도모할 수도 있다.

(2) 사업 지속성 강화

① 연구 활성화 및 성과의 사회적 확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매 5년 단위 종합계획은 급변하는 정세를 반영하는 데 미진할 수밖에 없으므로 문화예술교육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6조 제2항)의 의무조항이기도 하다. 연간계획 수립에는 전년도 사업 평가와 피드백이 중요하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지속적·안정적 실천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사업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관점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환류할 수 있는 기반이다.

② 수행단체 주도형 연구사업 개발 및 다각화

5개년 단위로 수립되는 종합계획의 약점은 연간계획을 통해 보정할 수 있다. 여기에 현장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더해진다면 문화예술교육 전반의 질적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강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면밀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의 맥락과 상황, 상호작용의 과정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수행단체의 주도로 콘텐츠를 평가·개발하는 연구사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장 연구를 통해 수행단체와 학습자, 전문인력 및 시설/기관 관계자 등의 다각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점도 성과로 기대할 수 있다.

③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다각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가 강조되는 가운데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개발한 홍보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애드보커시 영상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노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성과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교육 정보교류를 위한 홍보 매체 발간 역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문화예술교육 홍보 매체는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사업 홍보, 문화예술교육 단체와 프로그램, 공간 소개, 문화예술교육 관련 직무기술서의 보급 등 다양한 층위에서 길라잡이로 활용할 수 있다.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발간하여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3)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및 공감대 확산

① 가치 확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역 내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치 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 관리자 및 매개자, 문화행정가, 학습자 등 다양한 대상에 적합한 가치 확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학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다각화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교육을 사적인 기능교육으로 인식하거나, 노쇼,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로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태를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관계자들이 결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도 고려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구·군, 교육청의 문화예술정책 및 유사 사회서비스 정책 관련 담당 공무원과 기관장,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가와 종사자들이 부산광역시 도시정책 및 지역사회의 의제와 관련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하는 방식이다. 지역행위자(local agency)의 양성과 조직화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의 인식 제고와 확산을 동시에 도

모할 수 있는 모형이 될 수 있다.

② 시민 문화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부산문화예술교육은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해결과 지역 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적 역량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치유와 회복(resilience), 인권, 문화다양성, 세대 갈등, 소통 등 시대적 아젠다와 가치들을 재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현안에 관한 인식과 문제해결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공공예술 프로그램의 개발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구현 및 지역가치 발굴과 연동된다는 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고유한 가치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③ 세계시민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문화예술교육은 기후위기와 빈곤, 혐오와 차별 등 전지구적 과제에 공감하는 세계시민 양성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재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성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검토할 수 있다.

V. 제언

본 연구보고서는 지방이양의 맥락 속에 지역주도형(자립형) 부산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진에서는 제1차 정부종합계획과 제1차 부산종합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새롭게 제시된 제2차 정부종합계획, 문화예술교육 환경의 변화를 비롯한 부산지역 내부의 인구 동향, 문화 관련 정책 환경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부산지역 문화예술교육 현장 활동가들의 구체적인 요구와 전문가 의견 등 다각도로 논의 결과를 수렴하여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를 비롯해 문화예술교육 이해관계자 모두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예술교육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방향성]** 지금까지 예술교육은 미학적 성취에 목적을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의 문화정책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예술 가치 사슬의 확장에 따라 예술은 본연의 미학적 가치를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확장되었다. 이에 문화예술교육은 과도한 경제적 기대와 사회적 성과 구현에 대해 경계하면서도 예술 그 자체가 아니라 ‘지역민의 삶과 삶에 대한 태도’에 주목하는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에서 생활권 문화예술교육으로,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와 정책 사각지대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편, 사회적 변화는 그 자체로 학습자 개인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부산문화예술교육은 감각 체험의 질(qualia)을 느끼고, 설명하고, 표현하는, 살아 있는 교육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은 지역현장에서 다양한 주민 활동(생활문화, 평생교육, 사회복지, 도시재생, 교육공동체 등)과의 변별성과 협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
- **[5개년 종합계획의 실효성]** 예술가치의 확장과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가 확장되고 범주와 영역이 중첩되는 상황에서 5개년 종합계획이

과연 실질적인 효용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은 현장 상황과 맥락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기존의 결과(목표) 중심의 정적 계획이 아니라 현장의 과정(맥락) 중심의 동적 계획, 애질리티(민첩성, agility)를 높일 수 있는 계획과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가령, 이해관계자들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 상호식 설계, 미완성 과정 중심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방식의 혁신을 기하고, 문화예술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도시) 전체의 조직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회서비스로서 통합전략]**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였고, 범부처 사업으로 법무부, 행안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중앙의 범부처 협력사업은 지역단위에서는 어떤 연계성도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방정부 내 부서 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자립형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범부처(서) 간 협력사업이 지역단위 안에서 일상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아이디어는 제2차 정부종합계획을 참조할 만하다. 제2차 정부종합계획은 문화예술교육을 사회서비스로 인식하고, 정부 부처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란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항). 교육은 모든 인간의 기본권리이며 「문화기본법」 제정 이후 문화예술교육 역시 국민의 기본권리가 되었다. 따라서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은 문화예술교육의 확산성을 고려해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지원 체계로의 통합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주도성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지방이양으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리더십이 중요해졌다. 광역문화예술교육지

원센터는 지금까지 지역문화재단의 한 팀(문화교육팀)으로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노정했다. 이제 자립형 부산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집행을 위해서는 자기 법령(「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한 문화재단(「지역문화진흥법」)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예술강사지원센터 통합]** 자립형 부산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민간단체에서 위탁 운영해온 학교예술강사지원센터를 광역센터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전용공간]** 통상적으로 정책 전달 수단에서 거점공간은 필수적인 전제다. 부산형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난 시기 부산문화예술교육의 성과를 갈무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산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나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충돌과 실험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령, 정부와 매칭으로 이루어진 ‘꿈꾸는 예술터’는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유사하지만,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공간으로 적절할 뿐이며, 부산형 문화예술교육의 성과 축적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성격에는 결코 미치지 못한다.
- **[제도 개선]** 자립형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조례는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조항, 재정 확보 등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규제하지 못한다. 학교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조항, 기초단위 중심의 지역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광역단위와 기초단위의 역할과 기능을 명시하면서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조례 제정에 관한 조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향식 종합계획으로 설계해야 한다.

- **[기초단위 종합계획 수립]**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지방이양은 지역분권, 즉 자립적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중앙의 분류에 따라 지방이 맞추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지역 특성에 걸맞은 계획에 따라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획이 전환되었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종합계획은 기초자치단체의 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설계해야 한다(기초종합계획 → 광역종합계획 → 중앙종합계획). 그런데도 시·구·군 단위 행정 및 지역사회의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활동 주체가 형성되지 않음으로써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은 불가피하게 광역단위 중심으로 수립할 수밖에 없다.

- **[광역센터의 과제]** 지금까지 광역단위 체계로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되어 온 까닭에 기초단위에서는 아직 문화예술교육 주체라 할 만한 실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현재 부산광역시에는 기초단위 문화재단으로 금정구과 부산진구 2곳이 있다. 많은 전문가와 현장의 관점에 따르면 굳이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가 문화재단일 필요는 없다고 한다. 광역센터는 향후 5년간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자기 과제로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그리고 기초단위 문화 관련 담당자는 사회 서비스로서 문화예술교육 정책 확산 과정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생활권 문화협력]** 지금까지 정책 전달체계는 중앙 부처별 하향식이었다. 그리하여 지역 생활권 영역에는 다양한 정부 부처 정책 전달체계가 수직적으로 뿌리박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분권 정책 추진으로 시민참여가 일반화되고 주민의 힘과 노력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시점에서 과거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수직적 정책전달 체계는 주민 조직화와 주민 협력 활동에 오히려 갈등과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지역에 산재한 정부 부처별 기관시설은 다양한 주민의 요구와 활동을 촉진하는 장소로 개방하거나 제도, 기구, 공간, 시설, 인력, 프로그램 등에서 협력적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워킹그룹 운영]** 상향식 개방형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워킹그룹이 연간계획의 평가와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5개년 종합계획을 탄력 있게 수행할 수 있으며,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자원과 활동을 발굴함으로써 부산문화예술교육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넷째,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기여]** 교육받을 권리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며, 예술교육 역시 이에 준한다. 게다가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을 통한 웰빙이나 사회통합과 같은 국민기본권과 민주주의 성장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문화적 감수성과 상상력 제고를 통해 창의적 문화경제와 문화사회 진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 **[시민문화역량 강화에 기여]**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2020~2024)에는 시민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시민에 대한 권한 부여와 역량 강화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교육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강화되었다. 시민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지금까지 문화 관련 서비스가 대부분 문화와 예술에 대한 향유로 인식되어 온 것에서 나아가 지역문제 해결과 삶의 개선을 위한 문화역량, 다시 말해 ‘내 삶에 힘이 되는 문화예술교육’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언명은 부산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차별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부산광역시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의지와 공적 책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 **[포용적 관점 확산]**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생활권 내에서 힘이 되는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예술강사의 삶의 질과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예술강사 인건비, 복지, 학교 내 처우와 인식개선, 노동조합 인정 등과 같은 예술강사 처우 개선과 함께 예술강사의 활동 영역의 확대를 위해 국가(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미루어왔던 문화예술교육사 의무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신규 영역 개발을 위해 타 부서와의 협력적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섯째, 정부종합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 **[지역종합계획의 역설]** 중앙중심의 종합계획은 지역계획의 자립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중앙계획과 유기적이지 못한 경우 소외(배제)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지역분권의 기본 정신은 지방이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이 지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법령은 중앙정부의 5개년 계획 아래 지방정부의 시행계획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해당 중앙정부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계획 수립은 애초부터 어렵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업비 매칭 구조는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시킨다. 그렇지만 자율적인 지역계획의 수립은 자칫 중앙계획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럼에도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경쟁력이 되고, 이를 만들어 왔고 앞으로 만들어갈 지역민의 문화적 역량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라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독자성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계획과 지역계획의 연계성이라는 것은 공통의 목표 설정에 필요하다 하지만 그보다는 수립된 지역계획을 지역에서 더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권고’와 ‘규제’, 즉 지자체 내의 협력 이행과 지자체 보고 의무를 지우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광역단위와 기초단위 간의 연계성]** 지역종합계획의 역설은 광역단위 종합계획에서 재현될 수 있다. 따라서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이 제시한 워킹그룹 운영, 광역센터의 홍보와 지지활동(advocacy), 광역-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활동가 공동워크숍,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기초단위 종합계획이 우선하는 제3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8~2032)을 수립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장기계획이므로 종합적·포괄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지향점을 설정해야 하므로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섬세하게 담아내기도 쉽지 않다. 지역성과 지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종합계획과 연동해야 하는 현실에서 정책의 혁신적 변화로도모하는 데도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기술혁명과 사회변화를 고려하면 5년 장기계획은 공소한 구호로 전략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만큼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환류구조를 구축하고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셈이다.

부산문화예술교육의 수준은 단체 수와 역량,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행정 등 제반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성과에 안주해서는 곤란하다. 하나의 새로운 장(field)으로 자리잡은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

다. 부산문화예술교육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주체는 단체들이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디지털 역량의 강화, 지역 주도성 및 거버넌스,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은 단체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프로그램 개발과 고도화를 위해서는 시민의 문화역량과 세계시민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감과 소통, 치유와 회복, 행복 추구, 사회통합, 인권, 문화다양성, 기후위기, 빈곤과 불평등, 혐오와 차별 등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단체의 연대와 참여의식이 절실하다.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거는 기대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만큼 정책과 지원기관, 예산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가능성연구소, 『부산의 미래, 키워드를 찾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6.
- 곽덕주·남인우·임미혜, 『유럽에서 만난 예술교육』, 서울문화재단, 2015.
- 곽삼근, 『현대인의 삶과 문화예술교육』, 집문당, 2017.
- 김경애, 「교육복지 실천을 위한 포괄적 접근방식—미국의 학교개혁 사례(KIPP)와 비교해 본 포괄적 접근 사례(HCZ)의 의의와 원리」, 『평생교육학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평생교육학회, 2012, 153~181쪽.
- 김민정,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 제도에 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17.
- 김상원 외,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2018~2022) 이행상황 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
- 김성혜 외, 「2016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발전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6.
- 김은영, 『이론과 현장이 살아 있는 문화예술교육』, 학이시습, 2014.
- 김혁진 외, 「2017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 김형균, 『부산기질의 사회적 특성 연구』, 부산연구원, 2020.
- 김희재 외, 「부산문화예술교육 10년사 연구」, 부산문화재단, 2014.
- 경성대학교 문화발전연구소, 『마이너리티, 또 다른 부산의 힘』,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3.
- 남영희 외, 「2019 부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부산문화재단, 2019.
- 류미향 외, 「부산 유아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및 정책 방향 연구」, 부산문화재단, 2020.
- 문화체육관광부, 「2017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17.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2018.
- 문화체육관광부, 「2021 문화예술교육조사」, 2022.

백선아 외, 「50+ 세대 문화예술교육 활동 증진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부산광역시, 「제4기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부산복지개발원, 2018.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015 부산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결과자료집」, 2015.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016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2016.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017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2017.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021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2021.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우리·문화예술교육』(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총서 B·ART·E 1), 호밀밭, 2020.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문화예술교육』(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총서 B·ART·E 2), 호밀밭, 2020.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테크·문화예술교육』(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총서 B·ART·E 3), 비온후, 2022.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공간·문화예술교육』(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총서 B·ART·E 4), 비온후, 2022.

부산문화재단, 「201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결과자료집」, 2016.

부산문화재단, 「2016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결과자료집」, 2016.

부산문화재단, 「201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결과자료집」, 2017.

부산문화재단, 「2017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결과자료집」, 2017.

부산문화재단, 「20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결과자료집」, 2018.

부산문화재단, 「2018 놀이마루 결과자료집」, 2018.

부산문화재단, 「2018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2018.

부산문화재단, 「2018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 결과자료집」, 2018.

부산문화재단, 「2019 문화예술교육사 in 부산」, 2019.

부산문화재단, 「2019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2019.

부산문화재단, 「2019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결과자료집」, 2019.

부산문화재단, 「2020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2020.

부산문화재단, 「2020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결과자료집」, 2020.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국제포럼: 마법의 콩을 틔우다」 자료집, 2022.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교육 지난 10년, 다음 10년: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0주년 기념 대담집」, 2021.

부산발전포럼, 「부산지역문화예술교육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부산발전연구원, 2007.

서우석 외, 「2017 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오재환, 「부산지역 문화예술교육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부산발전포럼, 2017 5/6 월호.

원향미 외, 「부산광역시 문화지표조사」, 부산문화재단, 202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1 대한민국 SDG4 이행현황 보고서」, 202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2022.

윤종현 외, 「2013 유아 문화예술교육 실태 조사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윤혜란 외, 「2017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윤혜란 외, 「2020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

윤혜란 외, 「2021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2.

이동수 외, 「지역 문화예술교육자원 실태조사 및 활용을 위한 분류체계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7.

이미연 외, 「2017 부산지역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실태조사」,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2017.

이순욱 외, 「2018 부산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부산문화재단, 2018.

이순욱 외, 「2020 부산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결과보고서」, 부산문화재단, 2020.

이승욱 외,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부산문화재단, 2020.

정경은 외,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및 정책방향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

흥원, 2018.
 조현성 외,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조현성 외, 「문화예술교육정책 중장기 추진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제인 제이콥스, 유강은 옮김,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그린비, 2010.
 최보연 외,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부산을 알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 해외 문화예술교육 관련기관 동향자료집」, 201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0 문화예술교육 이슈분석」, 202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0 한눈에 보는 문화예술교육 인포그래픽스」, 202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 문화예술교육 이슈분석 리포트 통합본」, 202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2 문화예술교육 이슈분석 리포트 1호: 다시, 관계」, 202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인력플랫폼 구축 타당성 연구」, 2016.

홈페이지

대구예술발전소 www.daeguartfactory.kr
 문화예술교육사 acei.arte.or.kr
 문화예술교육 정보뱅크(시범운영) banktest.arte.or.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부산문화재단 www.bscf.or.kr
 부산광역시 www.busan.go.kr
 부산광역시교육청 www.pen.go.kr
 서울문화재단 www.sfac.or.kr
 예술가교사 artseduta.sfac.or.kr
 한국문화예술교육원 www.arte.or.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www.arte.or.kr

